

포스트모던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프로그램

새중앙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박재관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8년 5월

Copyright © 2018 Jaekwan Park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EPIC Church Education Program for Postmodern Generation A Case of Saejungang Church, Anyang, Korea

Jaekwan Park

Saejungang Church, Anyang, Korea

The biggest crisis that Korean churches face is the fact that next generation is leaving the church. This phenomenon is caused by maintaining modernist tradition without fully diagnosing the postmodern era.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Korean churches to understand the features and values of the postmodernism and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EPIC (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Rich, Connectivity) theory of Leonard Sweet as an alternative to the problem. In this research, the EPIC theory will be explained and applied to the cases of the theory at the Saejungang church. The postmodern generation desires Experience. They also create greater synergy in Participation. And they are more enthusiastic in real images than doctrinal frameworks. Korean churches need to deliberate on how to connect them with postmodern generation that values relations. On the basis of this understanding, this research has examined two programs that focus on Participation called "Tan's Project," a project sharing the coals of love and the "Knok Knok Show," a youth podcast broadcasting program. For the church education through Image, the Tong Bible School story is reviewed. This Tong Bible School has drawn God's Words into one big picture. And it is an excellent Bible program that shows the God's mind and the hope of the kingdom of God to be pursued by us in appropriate metaphors and symbols. Lastly, as the programs included the element of Connection, Good Character preparental Program, "Knock Knock Camp", a parents-child healing and recovery program, and "Youth Vision Campus Ministry," which connects schools and the church are studied

Throughout this research, struggles and concerns of church education which is helplessly lost in the time of change. Since situations and circumstances of each church have are different, it is difficult for all of the programs applied in this study t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in the local churches.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still hope in Korean churches if we respond to the challenges of the times without hesitation.

국문초록

포스트모던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프로그램

새중앙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박재관

새중앙교회, 한국

한국교회가 당면한 위기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현상에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온전히 진단하지 못한 교회가 여전히 모던주의적 전통을 고집하는데 있다. 때문에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과 가치를 이해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레너드 스윗 박사의 EPIC이론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EPIC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새중앙교회에 적용한 사례들을 정리하여 평가해 보려고 한다. 포스트모던 세대는 경험(Experience)하기를 원하는 세대이다. 또한 그들은 참여(Participation)의 광장에서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한다. 또한 교리와 같은 틀보다 더 실제적인 이미지(Image)에 열광한다. 교회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포스트모던 세대들을 어떻게 연결(Connection)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참여(Participation)의 요소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인 사랑의 연탄 나눔 프로젝트 “Tan’ s 프로젝트”와 청소년 팟캐스트 방송 “낙낙쇼”를 검토해보았다. 더불어 이미지(Image)를 통한 교회교육으로 통성경 학교를

살펴보았다. 통성경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려준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적절한 은유와 상징으로 풀어주는 탁월한 성경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연결(Connection)의 요소를 둔 프로그램으로 성품태교학교와, 부모와 자녀 회복프로그램인 “낙낙캠프”, 교회와 학교를 연결해 주는 “유스비전캠퍼스사역”을 연구해보았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무기력하게 힘을 잃어가는 교회교육의 고민과 몸부림을 살펴보았다. 각 교회마다의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에, 본 연구에 적용된 프로그램이 모든 지역교회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도전 속에 무기력하게 멈추지 않고 반응한다면 한국교회에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믿는다.

목 차

| | |
|--|----|
| 감사의 글 | x |
| 표 목차 | ix |
| I. 서론 | 1 |
|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 연구의 방법 | 2 |
|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 2 |
| 논문의 구조 | 3 |
| II. 포스트모던 시대의 이해 | 4 |
|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의 | 4 |
| 포스트모더니즘의 발달 | 5 |
| 포스트모던 시대의 가치 | 5 |
|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 | 7 |
| III.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의 EPIC 이론 | 10 |
| 레너드 스위트의 EPIC 이론 | 10 |
| EPIC 이론의 내용 | 10 |
| IV. EPIC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새중양교회 프로그램 | 21 |
| 새중양교회 교회학교의 상황 | 21 |
| EPIC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평가 | 22 |
| 새중양교회의 EPIC 프로그램의 반응과 평가 | 62 |
| V. 요약 및 결론 | 64 |
| 연구의 요약 | 64 |

| | |
|--------------|----|
| 결론의 결론 | 65 |
| 부록 | 66 |
| 참고 문헌 | 85 |

표 목차

| | |
|------------------------------|----|
| <표1> 선교학교진행표 | 24 |
| <표 2> Tans Project 진행안 | 33 |
| <표3> 통성경학교 주차 별 커리큘럼 | 39 |
| <표4> 통성경학교 시간표 | 40 |
| <표5> 낙낙캠프 진행안 | 47 |
| <표6> 낙낙캠프 설문 통계 | 49 |
| <표7> 행사 큐시트 | 53 |
| <표8> 달콤한 화요일 진행표 | 55 |
| <표9> 참석현황 통계표 | 56 |
| <표10> 유스비카 예배 순서표 | 57 |
| <표11> 2017년 유스비카모임 현황 | 58 |

감사의 글

배움이 멈춰지면 가르침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에 무모하게 시작한 학업이었건만 어느덧 종착지에 다다랐습니다. 먼저는 포기하고 멈추고 싶을 때 마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낙심치 않고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볼 때 감사 드리고 싶은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는 드루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주신 새중앙교회 박중식 원로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사역 속에서도 부교 역자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황덕영 담임목사님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배움의 시작은 나의 무지함을 자각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부족한 저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더 넓은 지성의 장으로 이끌어 주신 조병호 박사님과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의 세부적인 것까지도 꼼꼼히 지도해 주시고 끝까지 완주하도록 격려해 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긴 여정의 학업을 진행하면서 완주하도록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신 나문성 목사님, 양정모 목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동료의 완주를 위해 격려해 주신 새중앙교회의 교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자료를 위해 도움을 준 교회학교 교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도움이 없었다면 이 논문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참 교사의 모습을 알게 해주신 주일학교 은사이신 이태만 선생님과 목회에 있어 참된 길이 무엇인지 지도해 주신 장희섭 목사님, 저의 성장을 위해 도전을 주는 사랑하는 벗,

욱과 현재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증조부님과 조부님께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부족한 남편을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랑하는 아내 권지영과 사랑하는 아들 윤석이, 부족한 자식의 참다운 목회의 길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양가의 부모님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도 많아 제한적인 지면에 다 새겨 넣지 못하여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박재관

제 I 장

서 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래 한국교회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다. 하지만 80년대와 90년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한국교회는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급격한 쇠퇴의 길을 겪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외부적으로는 기독교인에 대해 좋지 못한 인식과 편견들이 팽배해 있으며, 저출산의 영향으로 다음 세대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가 그것이다. 미래학자 최윤식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한국교회의 잔치는 끝났다.” 고 선언한다. 그는 한국교회가 갱신하지 않는다면 2050년~2060년경에는 400~300만대로 줄 수 있으며 주일학교 학생들의 숫자도 30~40만 명대로 줄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암울한 예측들이 한국교회에 난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다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변화하는 세대와 그들이 사는 시대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 성장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어리석음에 있다고 확신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Text)이 우리가 사는 상황(Context)에서 진리로 각인될 때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시대적 상황(Context)을 무시한 채, 말씀(Text)만을 강조하여서 세상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또한 말씀

(Text)을 무시하며 시대적 트렌드만을 쫓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시대의 정황(Context)인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과 발달 핵심 가치를 알아보고 포스트모던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한다. 또한, 레너드 스윗 박사의 EPIC 이론을 토대로 새중앙교회 현장에서 적용했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소감과 인터뷰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포스트모던 세대 교육에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문헌연구와 함께 프로그램의 적용사례 제시, 인터뷰의 방법을 함께 활용하려고 한다. 문헌연구로는 포스트모던에 관계된 서적들과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을 정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중앙교회에 적용한 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또한, 적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소감문과 인터뷰를 통해 본 사역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본 논문의 목적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대한 학술적 연구 논문이라기 보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정리하고 그 시대적 경향의 대안으로 레너드 스윗 박사의 EPIC 이론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목회의 현장에 전달하는 데 있다. 그 때문에 지극히 현학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EPIC 이론을 목회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 참가자들의 소감과 인터뷰를 통한 논자의 평가를 주로 소개하고 있다. 새중앙교회는 만 명이 넘는 장년 성도와 4천 명이 넘는 교회학교를 가지고 있는 도심의 대형 교회다. 따라서 새

중앙교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프로그램이 모든 교회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EPIC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목회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논문의 구조

이 논문은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제 I 장에서는 이 논문의 쓰게 된 배경과 문제제기,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등 이 논문의 구조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제 II 장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의와 발달, 핵심 가치와 특징들을 살펴보며 포스트모던 세대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제 III 장에서는 포스트모던 세대를 위한 교회의 모델인 레너드 스윗 박사의 EPIC 이론을 정리하였다. 포스트모던세대들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의 필요성을 사회현상과 함께 제시 하고자 한다. 제 IV 장에서는 새 중앙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EPIC이론을 적용한 프로그램 소개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석자들의 소감문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평가 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 V 장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과 평가, 그리고 결론과 제언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제 II 장

포스트모던 시대의 이해

다음세대를 온전히 이해 하기 위해 그 세대의 시대정신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이 시대의 정신인 포스트모던 시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던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발달, 포스트모던 세대의 가치와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말한다. 포스트모던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 1889-1975)의 대표작 『역사의 연구』(Study of History)에서 서구 역사를 크게 암흑기, 중세기, 현대, 포스트모던의 네 시기로 구분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¹

닐 콜(Neil Cole)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일종의 철학 체계가 아니라 모더니즘에 대한 감정적 반응” 이라고 말한다.²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보편적 방법론” 으로 삶의 가치를 풀어내려는 “모더니즘” 에 대한 저항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포스트모던” 이라는 용어 자체에도 모순적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¹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2001), 14.

² Neil Cole, *Church 3.0*, 안정임 역, *교회 3.0* (서울: 스테스톤, 2012), 59-65.

지금 현재의 것을 포스트(post)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던”이 논리적이고 권위적인 것의 반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올바른 용어일 수 있다고 말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발달

모더니즘은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가장 중요한 권위로 두었다. 그리고 모더니스트들은 인간의 존재와 자연의 이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열쇠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선함을 믿었다. 이러한 시대정신 속에 자유주의신학이 등장하고 확산하기 시작했다. 모더니스트들의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은 20세기 초반에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던 이성의 바닥을 극명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독일의 나치는 유대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으며 미국은 2차대전을 종식하기 위해 원자폭탄을 투하했으며 냉전의 시대에 그들은 핵으로 서로를 위협했다.³ 자본중심적 경제는 인간을 채플린이 만든 영화 ‘모던타임즈’의 내용처럼 생산을 위한 부속품으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모더니즘에 대한 반응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 일어난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가치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상호관계에 있다. 상호관계의 중요성은 인간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³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통독원, 2007), 123-124.

모더니즘은 이성적 사고와 해답을 추구한다.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정식과 올바른 명제를 통한 논리적 해결방법을 추구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논리적 사고가 아닌, 체험에 쏠려있다. 모더니즘 교회들이 믿음, 도덕적 생활, 친교 순으로 우선순위로 삼았다면, 이제는 친교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도덕적 삶이며, 마지막으로 믿음이다.⁴ 모더니즘은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원인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해결의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매번 문제의 해결을 이룬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직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모더니즘이라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직선과 공식의 방식이 아닌 시적인 부드러움으로 표현한다. 모더니즘 시대에는 제품을 완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으나, 이제는 창의적 과정 역시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⁵

포스트모더니즘은 상호관계의 중요함과 더불어 이성적 사고와 해답보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매력을 느낀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외되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진리에 대하여서도 상대적으로 생각한다.⁶

포스트모더니즘은 상호관계의 중요함으로 거짓에 대하여 경멸한다. 거짓에 세워진 거짓 관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려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일과 사업보다 인간관계가 우선이다. 일과 사업이란 기업에 충성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로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⁷ 계몽주의는 개인주의와 이원론, 이신론,

4 Cole, *Church 3.0*, 67.

5 Ibid., 84.

6 Ibid.

7 Ibid., 72.

유물론, 물질주의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⁸ 사생활과 사생활의 분열, 정교분리와 정치, 경제 영역의 구별, 민주주의, 평등주의, 전문성주의 현상으로 나타났다.⁹ 그러나 2차세계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 끊이지 않는 전쟁 앞에서 인간의 이성은 무능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1960년대 이후에 감성적, 개인주의적, 신비주의적 사상들이 나타났으면, 현대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인간의 이해를 하게 되었다.¹⁰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

포스트모더니즘은 과학주의와 더불어 이성적 합리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시작한다. 인간의 이성이 역사적 문화적 제약에 있다는 것이다. 지식사회학, 생의 철학, 역사적 상대주의, 실존주의, 해석학이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¹¹ 자아의 붕괴와 이성주의 불신을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세계에 대하여 객관주의자로서는 전망할 수 없고 다만 해석하는 자로서 세계에 대하여 전망할 수 있을 뿐” 이라는 것이다.¹²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거대한 내러티브’의 증발을 조건으로 한다.¹³ 프랑스의 사상가 리타르는 포스트모던을 절대정신의 변증법, 의미의 해석학, 합리성 등 메타 담론에 대한 불신으로

8 데이빗 그리핀, “포스트모던 시대의 영성과 사회(1),” *세계의신학* (1997), 257-266.

9 Ibid., 202-203.

10 Cole, *Church 3.0*, 87.

11 김영한, *21C 세계관과 개혁신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98.

12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317.

13 Paul G. Hiebert, *Transforming Worldviews*, 홍병룡 역,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서울: 복있는사람, 2010) 431.

정의하였다.¹⁴ 오늘의 세계는 신화를 거부하는 세계, 웅대한 이야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가 되었다.¹⁵ 지미 롱은 포스트모던 시대 사람들은 ‘객관적인 진리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믿는가?’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묻는다고 말한다.¹⁶ 근대 시대의 낙관주의와 전근대 시대의 ‘하나님 안의 희망’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잊히게 되었다. 이제는 낙관주의 대신 의심과 불신이, 희망 대신 불안과 불안정이 자리 잡고 있다.¹⁷

계몽주의의 자율적 자아는 부족주의로 대체되었다. 또한 진리를 결정하면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담당하게 되었다.¹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만이 진리에 대한 비판의 권리를 가진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감각적 경험을 누린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단일성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켰다. 모더니즘의 결과 대신에 유연성, 차별성, 국제화 등을 추구한다. 오늘날 세계적인 대도시에서는 다양한 인종이 모이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¹⁹ 포스트모더니즘은 진정한 의미, 표준적인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저 의미와 해석이 다양하게 열려 있을 뿐이다. 진정한 의미나 표준적인 해석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다양성을 열어 두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즐기는 것이다.²⁰ 해석에 있어서 권위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성과 즐거움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와 표준이 되는 해석의 집착을 떨쳐 버리고 자신의 삶을

14 김영한, *21C 세계관과 개혁신앙*, 148.

15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 82.

16 Jimmy Long, *Emerging Hope*, 신현기 역, *새로운 청년사역이 온다* (서울: IVP, 2009), 99.

17 Ibid., 106.

18 Long, *Emerging Hope*, 99.

19 김영한, *21C 세계관과 개혁신앙*, 148.

20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 322.

누리는 것이다.²¹

²¹ Frank Webster,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조동기 역, *정보사회이론* (서울: 나남, 1997), 285.

제 III 장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의 EPIC 이론

레너드 스위트의 EPIC 이론

레너드 스위트는 미국에서 가장 주목 받는 미래교회학자 중 하나이며, 탁월한 영성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예언자적인 통찰력과 교회 문화 연구에 대한 강연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교회의 문화를 연구하는 Spirit Venture Ministry의 설립자이며, 드루대학교와 조지 폭스 대학 교수로 많은 신학도에 영향을 주었다. 그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목회를 위한 대안으로 EPIC 모델을 제시한다. 포스트모던 세대는 경험(Experience)과 참여(Participatory), 이미지(Image)의 사용과 관계를 연결(Connect)해 줌을 통해 복음 진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위트는 자신이 주장한 EPIC 이론을 실천하고 있는 스타벅스를 소재로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이 장에서는 EPIC이론에 관한 내용을 더욱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PIC 이론의 내용

모던시대에 이해(Understanding)를 추구하던 것이 경험으로, 대리자(Representative)가 담당하던 문화에서 참여의 문화로, 글(Words)이 우선되던 소통에서 이미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개인(Individual)이 중심이 되던 것에서 공동체

와 연결이 더욱 소중한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EPIC의 출현이다. 그러면 이제 EPIC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경험(Experience)

포스트모던 세대들은 ‘경험’이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레너드 스윗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근대적이기 보다는 중세적이어야 하고 교부 적이기 보다는 사도적이어야 한다.”¹ 설명이나 객관적 인식을 신뢰해 왔던 모더니즘 시대의 경향은 포스트모던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경험에 대해 열려 있다. 포스트모던시대의 사람들은 하나의 명제에 토론하고 정보를 입력하기 보다는 경험을 토대로 결론에 도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레너드 스윗은 세계의 경제가 "산업 경제"에서 "서비스 경제"로 이동했으며 그것이 다시 "경험 경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한다.² 2007년에 선보인 전자책 단말기 킨들은 아마존의 대표작 중 하나다. 아마존은 킨들로 전자책을 구독하는 서비스를 내놓은 뒤 미국 내 전자책 1위를 고수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아마존에서 팔려나간 전자책이 종이책을 뛰어넘었다. 킨들은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판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다. 제품을 팔 때는 내세울게 가격 밖에 없지만 경험을 팔게 되면 다양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마존의 전략이었다.³ 스윗은 “혼다사는 판매

¹ Leonard Sweet, *Post-Modern Pilgrims: First Century Passion for the 21st Century World*, 김영래 역, *영성파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서울: 좋은 씨앗, 2002), 61.

² Leonard Sweet, *Soulsunami: Sink or Swim in New Millennium Culture* (Zondervan: Kindle Edition), 187.

³ 송형석, “세상을 집어삼키는 아마존 성공의 4원칙,” 한국경제신문, 2017-10-18,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7101724631&category=AA021&sns=y>

전략을 ‘경험’에 근거해서 세운다.”고 말한다. 400여 개의 생산 공장을 북미에 둔 혼다의 성공은 ‘세 가지 기쁨’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혼다는 이 ‘세 가지 기쁨’에 의하여 차를 만들고 파는 데 참여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각자의 경험을 기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은 소유라는 긍정적인 경험을 해야 하고, 판매자는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경험으로 즐거워해야 하며 제품을 공급하는 혼다는 걸출한 제품으로 다른 구성 요소를 기쁘게 하는 경험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⁴ 다음은 브릿지 경제 뉴스의 기사이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전시장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쇼핑몰 안에 카페와 결합한 형태로 전시장이 들어서거나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신개념 특화 매장을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더욱 끌 수 있는 요소를 곳곳에 배치하는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액세서리 & 컬렉션 가게 공간이 있어 가족 단위 고객이 쇼핑하고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가 추구하는 차세대 전시장 콘셉트를 접목한 공간에 실물 차량 전시와 함께 미디어 월 및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해 볼거리까지 만족할 수 있도록 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스타필드 하남에 BMW·MINI 시티 라운지와 서비스 체크인을 오픈 해 운영 중이다. BMW·MINI 시티 라운지는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특화된 전시공간과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통해 BMW와 MINI의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 특화 전시장이다. 이 곳에서는 BMW와 MINI의 다양한 차종의 시승이 가능하며 BMW와 MINI 라이프스타일 매장에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직접 착용해보고 구입할 수 있다. BMW 측은 “BMW·MINI 시티 라운지는 기존의 전시장 형태에서 더 나아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오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⁵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라는 상품의 관심이 단순한 자동차의 스펙과 외형에 국한된 모던적 소비 경향에서 브랜드의 이미지와 좋은 경험을 통해 구매에 이르게

(2018년 2월 1일 확인).

⁴ Sweet, *Post-Modern Pilgrims*, 69.

⁵ 이효정, “전시장 벗어난 자동차, 경험·문화를 판다,” 브릿지 경제신문, 2018-01-18,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116010006142> (2018년 1월 15일 확인).

하는 포스트모던 적 소비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조 말론의 브랜드의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조 말론은 “런던에서 고급 주택가에 가고 싶다면 조 말론 매장을 찾아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국 상류층에서 인기 많은 향수 브랜드이다. 조 말론이 상류층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나만의 향수’ 라는 특별함 때문이다. 향수는 그 자체로 특색이 강해 섞어서 더 좋은 향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조 말론은 “다른 향과 조합해도 매력이 살아날 수 있는가?” 를 염두에 두고 모든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향을 섞었을 때 또 다른 매력이 살아난다. 고객이 여러 향수를 조합해 나만의 시그니처 향을 만들도록 돕는 조 말론 직원을 스타일리스트라 부른다. 두 가지 향수를 한번씩 뿌리는 오버래핑으로 나만의 향을 만들거나, 두 가지 향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다른 병에 담아 쓸 수 있다. 취향에 따라, 기분에 따라, 모임에 따라, 의상에 따라 원하는 향을 겹겹으로 스타일링해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⁶

경험경제의 하나의 트렌드는 고객이 스스로 제품을 결정하고 제작에 참여하는 것인데 조말론의 향수 DIY(Do It Yourself)가 그 좋은 예인 것이다. 조 말론의 트로티에 사장은 “우리의 목적은 물건을 파는데 있지 않고 경험을 통해 고객을 놀라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그의 말에 참으로 공감 하는 바이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색다른 것을 파는게 아니라 색다르게 파는 것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마케팅의 방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세대들은 간접적인 경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교회교육에 있어서도 그들은 사역자나 교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지식의 전달에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경험이 곧 메시지가 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이 삶에 이르는 메시지를 느끼며 변화하기 원한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경험을 공급해야 한다. 전방위적 경험은 포스트모던 예배가

⁶ 윤정원, “조말론은 어떻게 상류층을 사로 잡았나?” 브런치 웹진 끌리는 것들의 비밀, 2018-2-9, (<https://brunch.co.kr/@fit/8> (2018.2.11접속)).

추구하게 될 새로운 이슈가 될 것이다. 설교자들은 설교하지 않고 그들은 총체적 경험을 창조해내는 것에 관심을 쏟을 것이다. 이러한 ‘쉐키나’⁷의 경험들은 오감을 한데 묶어 찬란한 천상의 빛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찬란한 영광의 빛 안으로 이끈다.⁸ 포스트모던 세대들은 삶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고 경험하고 싶어 한다. 신앙인들은 종교적인 삶 보다는 종교적인 경험을 추구할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커피가 아니라 문화의 경험을 판다는.” 스타벅스의 경영 전략과 같이 단순한 진리의 전달과 강요가 아닌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참여(Participation)

경험과 참여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경험에는 목격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요소는 참가자이다. 어떤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자극이 되지만 직접 참여할 때 비로소 자신의 것을 확실히 내면화된다. 우리 앞에 펼쳐질 세계에 참여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⁹ 포스트모던 문화는 ‘참여의 세대’, ‘접근의 세대’이다. 현대의 세계는 ‘대표의 세대’ 였는데 이것은 ‘생각되고 말해진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사람들에게 ‘대표하는 것’이 목표였다. 경제계는 대표에서 참여로 변화하는데 교회보다 더 앞서 있다. 포스트모던 인들이 TV를 시청하는 데 시간을 덜 소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⁷ 쉐키나는 신의 임재를 뜻하는 히브리어이다.

⁸ Sweet, *Post-modern Pilgrims*, 78-79.

⁹ Leonard Sweet,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이지혜 역,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89-90.

그들은 바보상자의 수동성을 웹의 상호작용적 복잡성으로 대체했다.¹⁰ 포스트모던 인들은 상호 작용할 수 없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즉, 무엇을 소유하거나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않으며, 이제 그러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지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¹¹

레드햇의 짐 화이트 허스트 최고경영자(CEO)는 ‘레드햇 서밋 2016’ 기조연설에서 “참여는 새로운 혁신이다.”는 화두를 던졌다.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고, 증기 기관이나 CPU를 만드는 것과 같은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답은 참여와 개방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여러 조직과 분야에 걸친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들에게 함께 일할 자유를 줄 때, 혁신을 위한 능력은 개개인의 전체보다 훨씬 더 향상된다”고 강조했다.¹² 레드햇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 체제인 윈도우즈가 소스를 개방하지 않고 유료로 보급하는 것에 대항해 오픈소스를 통해 많은 프로그래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운영체제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의 운영체제인 리눅스를 무료로 배포하고 발전시킨 업체이다. 리눅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제인 윈도우를 위협하며 지속해서 진보하고 있다. 리눅스는 오픈 소스이므로 모든 사람이 소스 코드에 액세스 할 수 있었다. 사용자에게 소스 코드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부여하며 제안에 개방적이었다. 또한 전 세계의 많은 개발자들이 동시에 소스 코드에 액세스하므로

¹⁰ Leonard Sweet, *Carpe Manana: Is Your Church Ready to Seize Tomorrow?* 김영래 역 *미래 크리스천* (서울: 좋은 씨앗, 2005), 71.

¹¹ Sweet, *Post-Modern Pilgrims*, 101-102.

¹² 김우용, “4차 산업혁명 시대, 오픈소스와 참여의 힘,” ZDNET KOREA 뉴스, 2016-06-30,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630075944 (2018년 1월 21일 확인).

소스 코드를 보다 빠르게 개선할 수 있었다. 이것이 참여와 개방을 통한 리눅스의 성공 요인이었다고 본다. 레너드 스윗은 전자 문화가 ‘카우치 포테이토’ 나 ‘비디오트’¹³ 와 같은 수동적인 사람들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전자 문화는 수동성이 아니라 활동과 상호작용을 자극한다.”¹⁴ 실제적으로 많은 십 대들이 온라인 게임에 열광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들은 일방적인 강요나 관찰을 강요하는 오프라인에서 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직접 참여하여 전사도 될 수 있고 멋진 축구 플레이어가 될 수 있으며, 거대한 전투에서의 강인한 전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회도 포스트모던 세대를 예배와 교육의 현장으로 참여시키지 않으면 그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다. 스윗이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학생이나 보호자나 현인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의 증언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것을 알고 계셨다.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형성한 부르심은 간접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 박학다식이 아니라 행동이었으며 잘 짜인 계획과 신중함보다는 대담함과 뻔뻔함이었음을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는 기억해야 한다.¹⁵ 더불어 교회는 일방적인 예배와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참여의 광장으로 초청하고 그리스도를 경험케 해야 한다.

¹³ 카우치 포테이토(Couch Potato)는 소파에 앉아서 TV 채널을 돌리는 TV 중독자를 말한다. 비디오트(Vidiot)는 Video 와 Idiot 의 합성어로 역시 비디오에 중독되어 바보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¹⁴ Sweet, *Soulsunami*, 218.

¹⁵ Sweet,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130.

이미지(Image)

레너드 스윗은 “우리는 이미지에 목마른, 이미지가 이끄는 세계에서 산다.” 고 말한다.¹⁶ 그는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회중들이 대중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미지의 지배를 받는 건전한 이미지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포스트모던 문화의 정신적, 도덕적 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복음이 전하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⁷ 포스트모던 문화는 이미지를 추구한다. 포스트모던 문화가 추구하는 이미지는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세계 공용어가 될 것이다.¹⁸ 스윗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진단한다. 이런 진단의 이유로 구속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포장한 비유가 아니라 짜놓은 교리와 율법으로 전달 한 어리석음 인 것이다. 현대 교회와 다르게 초대교회에는 이미지 언어들이 가득했다.¹⁹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미지 곧 사람들을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일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골 1:15)라고 말했다. 예수님 또한 스스로에 대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 14:7.9) 이라고 말씀하셨다.

¹⁶ Sweet,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136.

¹⁷ Sweet, *Post-Modern Pilgrims*, 154.

¹⁸ *Ibid.*, 133.

¹⁹ *Ibid.*, 136-137.

문화는 은유와 상징 그리고 이야기가 그물처럼 짜인 매우 복잡하고 상징화된 시스템이다. 은유의 위력은 ‘균형 잡기’ 효과이다. 삶과 영을 영상화하는 작은 변화는 삶을 영위하고 의식을 형성하는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 은유적 전도, 은유적 설교 등 이미지화 된 언어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스윗은 “은유는 장식 그 이상이다. 은유는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며 은유는 추론의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원인 자체이다. 예배의 위력이 큰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은유를 그리스도에게 연결하고 마침내 삶을 변화시킨다.”²⁰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지가 기본적인 의사소통 매체가 되어 글을 대신하고 있다. ‘말’이 삶을 더럽힐 수 있다면, ‘이미지’는 우리를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데 있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정신은 말이 아니라 이미지로 형성되어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회중들이 대중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미지의 지배를 받는 건전한 이미지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다.²¹ 대중 문화를 향하여 조건 없는 배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교회의 이미지와 이야기를 세상 속에 내어놓는 것이 교회의 숙제가 될 것이다.

연결(Connection)

포스트모던 세대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닐 콜은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에서는 중요한 핵심 가치를 관계로 보고 있다.²² 실질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²⁰ Ibid., 141.

²¹ Ibid., 147.

²² Cole, *Church 3.0*, 67.

사용되는 두 개의 단어는 연결(*connected*)과 공동체(*community*)이다. 이 두 단어는 하나로 결합하여 ‘연결공동체(*connexity*)’라는 신조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공동공간’ 사라져가는 세계를 정보망으로 연결해 새로운 유형의 ‘공동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포스트모던인 들은 종교와 논쟁을 진행했다. 그들은 종교를 따분하게 여긴다. 그들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경험을 원한다.

레너드 스윗은 “포스트모던의 설교자들은 신도들을 채우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들을 살아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시킨다.”²³고 말했다. 포스트모던 세대가 원하는 경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거룩함과 삶의 변화를 맛보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가정, 일터 등과 함께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장소였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거룩함을 느끼고, 희노애락(喜怒哀樂)을 나누며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모던사회로 오면서 교회는 관계적 공동체에서 전체적 공동체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를 통한 의미 있는 관계 맺기를 추구하기 보다는 초월적 존재와 그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확신을 얻는 수단으로 교회를 찾아왔다.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과 이웃,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장이 아니라 단지 신앙의 지식과 실용적 교훈을 얻는 시간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연결의 복음이 곧 관계의 복음이며, 관계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²⁴ 스윗은 “EPIC에서 C가 공동체(*Community*) 보다는 관계(*connectedness*)로 보는 이유는 ‘공동체’라는 단어는 편협함, 좁은 마음, 시끌벅적함, 체제 순응과 같은 부정적인

²³ Sweet, *Soulsunami*, 53.

²⁴ 김영래, “스타벅스에서 배우는 포스트모던 목회,” *목회와신학* (2008년 8월호), 64-65.

의미의 함축이 있지만, ‘관계’는 모든 인류의 필요이자 하나님의 필요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²⁵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교회가 사람들과 관계 맺기에 실패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 자기들만의 계토를 만들어서 교회를 대적할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관계를 욕구로 가지고 있는 포스트모던 세대를 연결하여 관계 맺게 하는 공동체이다. 먼저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하려고 연결해야 하며, 구성원 간의 참된 성도의 교제를 위해 서로를 연결해야 할 것이다.

²⁵ Sweet, *Post-Modern Pilgrims*, 169.

제 IV 장

EPIC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새중앙교회 프로그램

새중앙교회 교회학교의 상황

새중앙교회 교회학교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 30여 년 지속되어 왔다. 작은 상가에서 시작된 교회는 현재 장년 성도가 14797명의 이라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며, 평촌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있다. 현재 교회학교는 약 5000명의 학생과 800명의 교사가 움직이는 건강한 공동체이다. 그러나 안양 평촌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주 5일 수업과 학원 야간 수업 제한의 여파가 교회학교에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다. 평촌 지역은 하나의 구역 전체가 학원가를 이루고 있다. 노량진 학원가나 강남의 학원가에 비해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주5일 수업과 야간 학원 수업 규제는 고스란히 교회학교 학생들의 주말을 학원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현상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교회학교의 청소년 부서와 어린이 부서였다. 통상 12-13세 부서인 소년부와 중고등부의 출석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학원에 보내기 위해 교회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와 예배를 하고 학원으로 가는 현상들이 많아졌다. 교회에 출석한 학생들의 경향도 포스트모던 세대의 모습을 띠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방적이고 주입식의 교육에 동의하지 않고, 더 많은 경험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더 많은 미디어와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다만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의

특징 중의 하나인 개인화 현상이 관계를 추구하는 포스트모던 세대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을 회복하고 세우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EPIC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평가

새중앙교회의 교회교육을 EPIC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각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 평가해보려고 한다. 이는 교회교육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경험하는 교회교육 프로그램

한국교회의 교회교육은 지극히 일방적인 경향이 있다. 교회학교 예배의 경우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풍경이 되어 버렸다. 예배를 통해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기보다는 교리나 성경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 받는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해 많은 교회교육의 피교육자는 흥미를 잃고 교회는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다. 스타벅스가 경험을 파는 것처럼 교회교육에는 말씀의 경험이 중요하다. 말씀을 듣는 경험을 통해 청중을 변화 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교회학교 교육자는 피교육자들이 말씀을 생동감 있게 경험하도록 교육을 기획하고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전도를 설교하여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현장을 보여주고 전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 할 수 있다. 구제를 백 번 설교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최근 TV 프로그램의 두드러진 현상은 리얼리티 쇼의 범람이다. 우리는 가상으로 결혼을 하거나, 감옥에서 죄수의 체험을 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열광한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어 주는 느낌을 마치 우리가 간접 경험한 것처럼 흥분하며 시청한다. 이 세대들은 경험을 열망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새중앙교회의 교육프로그램은 경험을 기초하여 구성하려고 애쓴다.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선교체험 프로그램이다. 새중앙교회는 백천만의 비전이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장년에서는 단기선교학교와 SMTC 훈련을 매회 갖는다. 교회학교에서도 이 비전에 동참하여 선교예배와 청소년 단기학교, 해외 아웃 리치를 실시한다. 다음은 청소년 단기 선교학교 및 해외 아웃 리치에 대한 내용이다.

청소년 단기선교 학교 및 해외 아웃 리치

‘청소년 단기 선교학교’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세대 청지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 명령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라는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꿈을 품게 하는 것이다.

새중앙교회의 비전은 ‘비전 백(백 개의 지교회). 천(천 개의 세계교회). 만(만 명의 선교사)’ 과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이다. 교회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중고등부가 한마음으로 품고 “만 명의 선교사, 그 한 자리는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청소년 단기 선교학교’를 하고 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새중앙교회, 더 나아가서는 한국과 세계교회를 책임질 차세대 청지기들이다. 이들이 “어떻게 하면 선교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에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 청소년 단기 선교 학교이다. 1 차로 5 주간의 선교학교를 통해 조금이나마 선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2 차로는 실제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 하신 일들과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 단기 선교학교’ 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인 세계 복음화를 차세대 청지기들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또한 미래를 준비해 가는 학생의 신분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방식

프로그램 구성은 이론교육과 실습으로 되어 있다. 이론 과정으로는 5 주간의 청소년 단기 선교학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습 과정으로는 약 1 주간의 해외 선교 현장 방문이 있다. 전체적인 진행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선교학교진행표

| | 강의 내용 | 강사 |
|------|----------------|------------|
| 1 주차 | 한국 선교의 역사 | 이종훈 선교사 |
| 2 주차 | 왜 선교를 해야 하나 | 브라이언 정 선교사 |
| 3 주차 | 선교 공동체 | 홍광표 선교사 |
| 4 주차 | 국내 선교지 탐방(양화진) | 조장 |
| 5 주차 | 소감 발표 | 교육생 |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1>과 같이 강의 중심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주차 별로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요소와 단기선교를 위한 회의로 진행된다. 단기선교학교 운영 기간 동안은 선교에 대한 강의가 중심적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해외 선교에 필요한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1주 차 프로그램의 세부사항과 역할은 부록 1의 내용과 같다.

세부 진행을 부록 1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1주 차와 5주 차는 입학식과 수료식으로 구성되고 2,3주차는 강의 중심으로 4주 차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찾아가 한국 선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다.

선교학교를 마치면 후반기 교육으로 청소년 단기선교를 한다. 선교지는 교회 선교부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담당 사역자와 현지 선교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선교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현지에 가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상황과 현지 선교체험 및 문화체험, 빈민 사역지 방문 등 다양한 문화 체험과 선교 체험을 통해 선교의 꿈을 품게 한다. 특별히 현지 선교사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통해 선교를 마친 후에도 중보기도자로 후원하고 작은 선교 후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단기선교의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부록 2의 단기선교 최종 보고서를 참고하면 된다.

프로그램 평가 및 분석

청소년 단기선교학교 및 해외 아웃 리치에 참가한 학생들은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해외 아웃 리치를 참여하고 마치는 과정까지를 진행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들은 단기선교학교 과정 가운데 자신들의 역할을 준비하며 자발적인 사역을 경험했고 예배시간이나 선교초청 특강에 목회자나 초청 선교사의 강의를 통해 막연하게 느꼈던 선교를 몸으로 하며 선교가 자기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현대 청소년들은 3무(無) 세대라고 부른다. 그들이 무관심, 무반응,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편견에서 나온 반응이다. 그러나 이렇게 반응이 없고

관심이 없으며 책임이 없는 청소년들도 체험하고 경험케 하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단기선교라고 생각한다. 선교를 통해 참가자들은 선교사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껏 선교는 선교사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것이라는 개념에서 열방을 품는 것도 선교이고, 선교를 돕는 것도 선교이며, 더 나아가 작은 시간이라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를 위로하고 섬기는 것도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된다. 무엇보다 단기 선교학교의 참가자들은 선교를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아부 아기학교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개

아기학교는 엄마와 아기가 함께 하는 영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어린아이들이 네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눅 18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고 기쁨이고 상급이며 아기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것을 양육자에게 가르치고자 함이다. 매 주일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만으로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사회적으로 부모의 욕심과 육아의 편함을 위해 일찍부터 문화센터를 보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문화센터가 세상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의 욕구를 채우는 프로그램이라면, 아기학교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기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와 접목하면서 부모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다. 아기 학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를 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세상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세상을 멋지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접해보

는 프로그램이다.

아기학교는 나를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름다운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아기들에게 펼쳐진 자연 세계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져보는 학습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아기학교는 아기가 처음 맞게 되는 사회생활을 엄마가 도우며 엄마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활동하는 주중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부모들이 많고 일찍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기들이 많아진 가운데 주중에서 토요 학교로 자리를 옮겨 토요일에 아기학교를 진행한다. 토요일에 아기학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참여율도 높아지고 엄마가 오지 못할 경우 아빠가 와서 함께 할 기회의 폭이 넓어진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 나무, 흙, 물, 과일, 동물 등 자연에서 오는 활동 학습을 밖의 활동을 위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기들의 체험과 엄마와 아빠가 아기와 함께 하는 순간의 기쁨을 제공한다. 아기와 부모 모두 신나는 활동들을 통해 행복을 가득 담은 순간으로 세우며, 엄마랑 아기랑 마음껏 표현해 봄으로써 정서적인 교류와 관계적 성장도 도모한다. 아이들이 손을 사용하고 오감으로 마음껏 표현함을 통해 사물을 경험시키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존감을 키우며, 기다림 속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자립심을 심화시킨다. 아기들이 가정에서 경험 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다양화시키고 또래 아이들과 함께 활동함으로 규칙을 익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해 주는 태도와 사회성을 키워 준다.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방식

영역놀이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찬양과 율동 그리고 신체체조를 통하여 몸으로 표현하고 시청각으로 말씀을 쉽게 접하게 되며 분반으로 맛있는 간식과 나만의 작품 만들기를 한다. 그리고 대그룹 활동인 신문지 비 놀이 대형비닐 놀이 물감 찍기 놀이 등 다양하게 몸으로 온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계 수업으로 진행하며 3주차에는 가을 산행으로 야외체험 활동을 한다. 야외체험을 제외한 프로그램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09시 30분 ~ 10시 50분: 스텝 기도 모임 및 하루 진행 점검
- 10시 50분 ~ 11시 35분: 안내 및 자유 영역놀이 및 정리
- 11시 35분 ~ 12시: 찬양 및 율동 신체체조
- 12시 ~ 12시 10분: 말씀 여행
- 12시 10분 ~ 12시 35분: 간식 및 분반 활동 및 만들기
- 12시 35분 ~ 12시 55분: 대그룹 활동
- 12시 55분 ~ 1시: 축복기도 및 귀가

프로그램 평가 및 피드백

다음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엄마와의 심층 인터뷰 내용이다.

Q: 아기학교 참여하게 된 동기는?

A: 프로그램 내용의 유익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선택하게 되었다. 다른 외부적인 프로그램도 많지만 체험으로 말씀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Q: 외부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A: 외부 다른 프로그램은 시간이 30~50분으로 진행되지만 아기 학교는 시작 전 탐색의 시간이 있어서 아이의 적응이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어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말씀을 놀이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격도 교회적으로 지원이 되어 기간에 비해 매우 저렴하였다.

Q: 아기학교를 통해 얻게 된 유익한 점은?

A: 찬양을 많이 배우게 되어 가정에서 아이에게 찬양을 많이 불러 줄 수 있게 된 점이다. 또한 동기 아이들과 관계를 맺음을 통해 사회성을 체험하게

되었다. 선생님들이 아이 한 명 한 명을 친근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이 느껴지면서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더불어 엄마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직장인 엄마로서 시간적 할애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이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점이 유익했다.

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참가자들은 먼저 프로그램 선택의 동기가 체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여타의 프로그램보다 충분한 프로그램의 시간 확보와 말씀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매력 때문에 아기학교를 선택한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의 만남으로 사회성을 성장시키고 엄마와의 유대감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이다. 이외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평가의 공통분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의 관계 영역이 발전되었고, 놀이를 통한 말씀의 기쁨과 사랑의 체험했다는 점이다. 또한 아기학교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진행이 목적이 아니라 섬김이 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숨겨진 의도가 담겨 있다. 더불어서, 세상의 방식과 다른 교회공동체의 섬김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지만 2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긍정적 평가는 경험하게 하면 움직인다는 것이다. 단기선교학교를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믿음의 경륜이 높은 학생들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국에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참여한 경우가 많다. 5 주 간의 선교학교기간 이런 학생들은 수많은 갈등을 한다. 그러나 선교지에서의 1 주일동안의 경험은 그들을 움직이게 한다. 신앙적으로 그들은 변화하게 되고 예배에 더 적극성을 띠게 된다. 아기학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고된 직장 생활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던 엄마들이 아기학교 봉사자들의 섬김과 봉사를 경험하게 되면, 봉사자들이 왜 나와 아이를 위해 시간과 열정을 들여 나를 섬겨 주는가에 대한 긍정적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봉사자들의 사랑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받은 사랑의 경험은 아이에게 전달 되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싶은 동기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던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다.

참여하는 교회교육 프로그램

하워드 헨드릭스는 “최대한의 배움은 최대의 참여의 결과” 라고 했다.

우리가 참여를 통해 학습하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¹ 또한 돈 탭 스콧은 그의 책 디지털 네이티브에서 “훈련만 시키지 말고 참여시켜라.”²라고 말했다. 너무나도 수동적인 훈련은 구성원들의 역동을 끌어 낼 수 없다. 포스트모던 세대들이 갈구하는 것은 참여이다. 아이들이 게임에 열광하는 현상 또한 참여의 한 부분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들이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누구의 지시 없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열광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회학교의 교육도 일방적으로 진행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방적인 교육은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를 듣는 피교육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예배를 관람케 하는 경우가 한다. 그렇다 보니 다음 세대들은 예배자라기 보다는 관람객으로 전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교육을 구성 할 때 참여는 너무나 중요한 화두이다. 피교육자로 하여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준비된 교회 학교의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¹ Howard G Hedricks, *The 7 Laws of Teacher*, 김의원, 조남수 역, *교사 입니까?*(서울: 아가페, 1993), 70.

² Don Tapscott, *Grown Up Digital: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이진원 역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가 움직이는 새로운 세상 디지털네이티브* (서울: 비지니스북, 2009) 340.

Tans Project (사랑의 연탄 나눔)

프로그램 소개

사랑의 연탄나눔은 신발 브랜드 ‘TOMS’³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다. 그래서 TANS PROJECT⁴이다. TOMS에서는 신발 1 켤레를 판매하면 1 켤레를 신발이 없어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아이들에게 기부를 한다. TANS PROJECT는 양말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 기부하는 Toms의 ‘1 for 1’ 컨셉에서 착안하여, 저렴한 가격에 양말을 도매로 구매하여 소매로 팔아서 이 수익금을 연탄으로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연탄이 필요한 데, 그들을 위해 연탄을 기증하고 전달하는 사업이다. 연탄을 전달하기 전 양말 후원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양말 한 켤레의 수익금은 연탄 2장의 가격과 같다. 그래서 학생들이 양말을 1 켤레를 2000 원에 사게 되면 연탄 2장이 자동으로 기부된다. ‘2 for 1’ 컨셉을 가지고 후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양말 판매와 구매를 통해 기부에 참여한다. 연탄 전달도 사랑의 연탄 나눔 본부와 함께 참여해 힘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준다.

프로그램 기획 의도

조나단 에드워즈는 불우이웃돕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⁵ 이라고 하였다. 봉사 활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선 가난한

³ TOMS는 블레이크 마이코스키에 의해 만들어진 브랜드로 그가 아르헨티나 여행시 신발이 없는 아이들을 보고 고객들이 1 켤레의 신발을 사면 1 켤레를 기부하는 방식의 ‘one for one’ 기부 방식의 회사를 세운 것이다. 그 뜻은 ‘Shoes for Tomorrow’를 줄인 말이라고 한다.

⁴ 여기서 Tans는 연탄의 ‘탄’에서 따왔다.

⁵ Jornathan Edward, *Much in deed of charity*, 백금산역, 불우이웃돕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다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29.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참 많으셨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셨을까? 단순히 봉사하고 나누면 기뻐서, 웬지 마음이 뿌듯해서만 그럴까? 그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서 회복되어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한 참여의 장이 성탄 맞이 사랑의 연탄 나눔이다.

프로그램을 통한 기대효과는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게 하며, 직접 어려운 현장을 보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에 있다. 또한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이며, 힘겨운 이웃들을 돕는 것을 성경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방식

Tans Project는 3주 전 양말을 구입하고 행사 전 2주간 양말을 판매한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연탄구입비용을 충당하고 행사 당일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것이다. 연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전달행사 3주 전부터 양말판매를 통해 마련한다. 모든 판매와 정산도 학생들의 참여에 의해 진행한다. 양말판매는 각 예배시간 이후에 진행하여 수익을 정산하고 연탄을 주문한다. 사랑의 연탄 전달 행사는 성탄절이 있기 전 토요일에 진행한다. 참여하는 모든 학생은 사단법인과 연계하여 봉사시간을 부여하게 된다. 사랑의 연탄 전달 행사의 세부 진행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표2> Tans Project 진행안

| Tans Project 진행안 | | | | |
|------------------|-------------|----|---------|--------------|
| 순서 | 시간 | 분 | 주요진행사항 | 세부 준비사항 |
| 1 | 09:00-10:00 | 60 | 집합 및 이동 | 조별로 각 장소로 이동 |
| 2 | 10:00-11:30 | 90 | 연탄배달 | |
| 3 | 11:30-12:30 | 60 | 정리 및 복귀 | |

프로그램 평가

지난 Tans Project에 참여한 30여 명의 친구들의 피드백을 들었다. 어떤 친구는 연탄 나눔 봉사를 한다니까 멀리 가는 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연탄은 나와 별로 상관없는 지역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었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바로 뒷골목에 연탄을 사용하는 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 이런 피드백들을 들어보니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나의 이 작은 섬김으로 한 가정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한 마음을 느끼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직접 참여하는 교육의 장소를 마련하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연탄 전달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교회의 다른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더불어 직접 판매하고 전달하고 나니 더욱더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전에는 교회에 게스트 같았는데 이제는 호스트가 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들이 만약 예배당에서 수동적으로 구제에 관한 설교를 들었다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교회학교 교육자는 변화하는 세대를 예측하고 그들을 참여의 장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팟캐스트 낙낙 쇼

1970년대부터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은 ‘별 밤’이나 ‘디스크 쇼’, ‘꿈과 음악 사이에’ 같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라왔다. DJ에게 사연을 보내고, 자신의 편지를 DJ가 읽어 주면 환호하는 청소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아날로그의 감성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 가면서 오늘날 라디오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디지털 세대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팟캐스트 방송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이것은 온라인의 공간에서 자신의 음성파일을 올려서 세계의 모든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는 혁신적인 방송 시스템이다. 더러는 무분별한 방송의 소재로 공익을 해칠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놀라운 매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학생들과 함께해 보았던 것이 팟캐스트 낙낙 쇼였다.

프로그램 소개

낙낙쇼는 두드린다는 뜻의 영어의 ‘Knock’ 과 한자의 ‘樂’ (즐거울 낙)의 합성어로 마음을 두드리면 기쁨이 찾아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시대의 콘텐츠인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학생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게스트와 출연진은 음악과 대본의 진행

등을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고 어른들의 시선이 아닌 청소년들의 고민을 듣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의도는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었다. 목회 현장에서 절대로 자신의 속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아이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해서 자신의 고민을 쏟아 놓는다는 컨셉을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로 삼았다. 그렇기에 이 프로그램의 청취자는 청소년으로 한정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알고 싶은 학부모나 교사, 사역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청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되었다.

프로그램 기대 효과

이 프로그램은 방송이 가지고 있는 ‘참여’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다. 학부모와 교사, 교역자, 청소년이 고민거리를 나누면서 서로의 세대의 이야기를 한다. 해결 중심의 상담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참여자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소년의 사연과 고민을 방송이라는 포맷을 통해 참여하고, 입소문을 통해 친구들에게 전하는 의도를 가지고 제작하였다. 더불어서 학부모들이 청취에 참여하고 게스트로 초대받아 자신의 세대 이야기를 전달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제작하였다.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방식

프로그램의 포맷을 위해 학생대표와 교사, 학부모 대표와 교역자가 상의를 통해 그 주의 주제를 정한다. DJ는 담당 교역자로 정해 진행하고 출연진에 합한

사람들을 캐스팅한다. 그 주에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교사와 학생이 대본을 작성한다. 하지만 이 대본은 자세한 워딩을 다 담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의 진행 방향만 제시한다. 방송에 관심 있는 학생이 엔지니어를 맡고 시그널과 간단한 CM 송도 학생이 만든다. 회의 녹음실 공간에서 게스트가 모이면 녹음을 하고 전반기 작업을 마친다. 후반기 작업은 엔지니어 학생이 출력을 조절하고 편집해서 교역자에게 파일을 주면 담당 사역자가 청취 후 PODCAST⁶, 나 팟빵⁷에 무료계정을 통해 방송을 올린다.

평가 및 피드백

팟 캐스트 낙낙 쇼의 반응은 생각했던 이상의 반응이었다. 청소년 카테고리에 4위에 랭크 될 정도로 훌륭한 반응이 있었다. 방송에 참여한 스텝들은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친구들이었는데 교회 봉사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었다. 방송의 엔지니어를 맡은 학생은 다음 해에 방송에 관련된 전공으로 대학에 갔다. 이 방송에 있어서 더 큰 긍정적인 평가는 학부모들의 청취와 반응이었다. 자녀들의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에 관심이 있었으나 그것을 들을 창구가 없었던 학부모들이 청취와 참여를 성원해 주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담당하는 사역자가 전문적인 방송인이 아니고 학생들의 학업적 부담 등이 프로그램의 지속에 어려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은 아직도 새중앙교회 중고등부 안에서 창조적인 도전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은 날

⁶ Apple사의 ipod+ Broadcasting의 합성어로 온라인에 음원을 올리는 방식의 라디오나 비디오 방송 포맷이다. 주로 휴대폰 앱을 통해 보급된다.

⁷ 안드로이드 체제의 휴대폰에 적합한 팟캐스트 어플로 아이폰 사용자가 아닌 청취자들에게 보급되는 콘텐츠다.

것 같은 투박함도 ‘참여’의 옷을 입으면 멋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다. 더불어서 이러한 도전들이 계속된다면 청소년들이 교회를 꿈꾸는 장소요,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참여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을 확신한다.

큰 그림을 그려주는 교회교육

레너드 스위트는 “이미지는 마음의 생각이다. 우리는 이미지의 동산을 경작함으로 성장하는 영혼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다. 그들은 추상적인 명령이나 현실에서 괴리된 음성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있다.”⁸고 말했다. 포스트모던 세대는 괴리와 추상을 추구하기 보다는 실제적인 것을 추구 한다는 것이다. 덴 킴볼은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이 말을 통한 가르침을 강화하기 위해 시각적인 요소를 사용했다.”⁹라고 말했다. 우리의 설교나 성경공부는 너무나도 교리적이고 사색적인 경향이 크다. 성경의 내러티브나 은유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의 가장 합당한 프로그램은 성경을 입체적으로 가르치는 통성경학교이다.

통성경 학교

조병호 박사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철학 아래 통성경 운동을 벌여왔다. 통성경 학교는 성경을 파편화하지 않고 통으로 살펴보며 성경전체를

⁸ Leonard Sweet, *Giving Blood*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37.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신학과세계* 80 (2015) 53에서 재인용.

⁹ Dan Kimball, *The Emerging Church*, 윤인숙 역,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 (서울: 이레 서원, 2008), 227.

누구나 이야기로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성경 프로그램이다. 통성경 학교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읽기를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공부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프로그램 기획 의도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에 대해 친숙하지 않다는 성도들의 성경 읽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성경읽기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통성경’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포스트모던 세대를 위한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성경을 큰 그림으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필요인 은유와 이야기를 통해 쉽고 재미있으며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매력이다. 또한 통성경의 미션인 “5 세에서 20 세까지 부모에게 성경을 배운 자녀들이 20 세에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고 스스로 고백하게 한다.”¹⁰는 내용은 전 연령 교회교육에 모범이 된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기대 효과

통성경학교를 통해 참여자들은 십자가를 성경 전체의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 신구약을 이해하게 되며 성경 전체에 펼쳐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성경의 줄기를 이미지로 이해하며 성경을 통한 기도를 훈련하고 전도를 교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¹⁰ 조병호, 통박사 조병호의 통성경학교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6), 4.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된다. 무엇보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통독을 한 번도 못한 성도들에게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¹¹.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방식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Family School 을 위한 통성경학교를 주제로 하여 10 주간의 통성경학교를 개최했다. 주차 별 세부 커리큘럼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통성경학교 주차 별 커리큘럼

| 주차 | STEP | 강의주제 |
|----|---------------------------------------|---|
| 1주 | Pre-Step1 그 순간 성경과 영성 | 1강. 왜 5세인가? From in fancy 2강. Pre-Step1 - 그 순간 3강. Pre-Step1 - 성경과 영성 |
| 2주 | Step1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나라: 7가지 질문 | 1강.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강. 7가지 질문 1 3강. 7가지 질문 2 |
| 3주 | Step2 하나님의 마음 | 1강. 하나님의 마음 1-5과 2강. 하나님의 마음 6-11과 3강. 하나님의 마음 12-20과 |
| 4주 | Step3 성경줄기1 - 모세5경 | 1강. 통성경길라잡이 1-4과 2강. 통성경길라잡이 5-8과 3강. 통성경길라잡이 9-11과 |
| 5주 | Step3 성경줄기2 - 왕정 500년 | 1강. 통성경길라잡이 12-14과 2강. 통성경길라잡이 15-17과 3강. 통성경길라잡이 18-19과 |
| 6주 | Step3 성경줄기3 -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 1강. 통성경길라잡이 20-21과 2강. 통성경길라잡이 22-24과 3강. 통성경길라잡이 25-26과 |
| 7주 | Step3 성경줄기4 - 4복음서 | 1강. 통성경길라잡이 27과 2강. 통성경길라잡이 28과 3강. 통성경길라잡이 29-30과 |
| 8주 | Step3 성경줄기5 - 사도행전 | 1강. 통성경길라잡이 31과 2강. 통성경길라잡이 32-38과 |

¹¹ Ibid., 5.

| | | |
|-----|---------------------------|--|
| | 30년, 공동서신 9권 | 3강. 통성경길라잡이 39-40과 |
| 9주 | Step4 성경을 통한 기도 | 1강. 성경 기도이야기 1 2강. 성경 기도이야기 2 3강. 성경 기도이야기 3 |
| 10주 | Step5 패밀리스쿨: 이야기 전도 | 1강.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 2강. 5대 제국과 유대인 이야기 3강. 예루살렘 성전과 5대 제국 |

위의 표와 같이 10 주의 커리큘럼으로 하여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 시까지 통성경학교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통성경학교 시간표

| 통 성경학교 | | | | |
|--------|------------------|----|--------------------|----------------------------|
| 순서 | 시간 | 분 | 주요진행사항 | 세부 준비사항 |
| 1 | 18:50- 19:10: | 20 | 다과 및 숙제점검 |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김밥과 과일류를 준비한다. |
| 2 | 19:10- 20:00 | 50 | 1 st 강의 | 강의 시간 준수 |
| 3 | 20:00- 20:20 | 10 | 휴식 | 통성경학교 노래를 계속 틀어 놓는다. |
| 4 | 20:10- 21:00 | 50 | 2 nd 강의 | 강의 시간 준수 |
| 5 | 21:00- 21:10 | 10 | 휴식 | 통성경학교 노래를 계속 틀어 놓는다. |
| 4 | 21:10- 22:00 | 50 | 3 rd 강의 | 정리 후 과제 재시 |

매주 목요일 수업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스텝들이 회의하고 프로그램 진행 중간에 필요 영역을 채워준다. 또한 강사들은 정해진 강의 시간에 맞춰 성경의

전체를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강의하여 성도들에게 더 넓은 성경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평가 및 피드백

통성경학교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의 평가를 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했었는데 흐름을 이해하니 훨씬 더 역동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원** 권사).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얻었다. 무엇보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감을 좁혀 주었다(진** 집사).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되며 성경을 읽으니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느껴졌다. 성공을 추구하며 제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모습 속에서 참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대학생 이** 청년).

매주의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성경을 더 입체적으로 보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었고, 성경통독의 동기부여를 가졌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교회에 더 깊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특별히 통성경학교가 여타의 프로그램과 차별화 되는 것은 확실한 큰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성경 전체의 숲을 보게 되며,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데에 있다. 강의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다음 기수에 스텝으로 재생산되어가며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포스트모던 세대에게 있어 성경 읽기의 가장 큰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통성경학교라고 여겨진다.

연결을 통해 관계를 맺어주는 교회교육 프로그램

포스트모던 세대는 앞서 말하였던 것처럼 관계를 추구한다. 그렇다면 관계를 중요시하는 포스트모던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그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를 N 포세대¹²라고 한다. N 포세대의 영역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은 관계 맺기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젊은이들이 단순히 관계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중앙교회의 프로그램은 관계의 영역을 세우는 것에 많은 무게를 둔다.

먼저 소개할 프로그램은 성품태교 학교이다. 산모가 태아와의 관계를 세우는데 중요한 방점을 두고 진행하지만, 이보다 더 큰 기능은 출산을 앞둔 산모들과의 네트워크를 세워주는데 있다. 성품태교학교의 참여 자격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둔 산모들은 교인이 아니어도 지원 할 수 있다. 성품태교가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 각 조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영아부 교사임으로 후에 불신자들이 교회 영아부에 참여하게 되는 연결 포인트이기도 하다.

성품태교학교

영아부(0-2 세)에서 진행하는 성품태교학교는 아기를 가진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3월과 9월 둘째 주 목요일에 시작하여 7주 8회기로 진행되다가 지금은 6주차로 진행한다. 성품태교학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아기의 성품은 이미 태내에서 형성이 되기에 출산 후 시작하는 영아부 교육보다는 엄마 배

¹²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연애, 결혼, 취업, 희망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

속에 있을 때 엄마를 통한 태내성품교육이 중요함을 깨닫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자’ (눅 1:15 하) 라는 주제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태교신기에 보면 ‘아비 낳음과 어미 기름과 스승의 가르침이 모두 한가지라 의술을 잘 하는 자가 아직 병들지 아니함을 다스리고 가르치기 잘하는 자는 태어나기 전에 가르친다. 그러므로 스승의 10년 가르침이 어미가 잉태하여 열 달을 기름만 같지 못하고 어미 열 달 기름이 아비 하루 낳는 것만 같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태중에서부터 아기의 성품이 형성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 태중에서부터 구별되기를 소망하면서 태교학교를 계획하게 되었다. 처음 시작한 영아부에 나오는 엄마들 중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큐티 모임으로 시작하면서 통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꼈다. 교회는 영성교육, 병원은 필요를 따라 자연분만과 모유 수유, 문화센터는 임산부 체조와 만들기 등으로 따로 따로인 것을 보면서 하나로 모아 영적, 정서적, 육적 필요를 연결하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성품태교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7주 8회기로 하였으나 지금은 6주 차로 진행한다.

성품태교학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아기의 성품은 이미 태내에서 형성이 되기에 출산 후 시작하는 영아부 교육보다는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엄마를 통한 태내성품교육이 중요함을 깨닫고 ‘모태로부터 성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자’ (눅 1:15 하) 라는 주제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를 더 발전시켜서 지역사회의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의 가치로 아이를 양육시키는 것을 가르쳐서 교회와 연결하는 것에 있다.

프로그램 기대효과

태교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임신한 엄마들의 정서적, 안정감이다. 그리고 출산은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게 되는 기쁨이라는 생각의 전환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며 출산은 하나님과 아기가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출산을 맞게 하는 것이다. 성품태교학교를 통한 교육을 통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를 내어 자연 분만에 도전하고 출산보다 어려운 모유 수유에 인내하며 성공하는 엄마들의 소식을 들을 때 기쁘다. 또한 출산 후 몸조리를 마친 후 자연스럽게 영아부 예배로 이어진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며 예배로 이어져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방식

프로그램의 구성은 찬양과 말씀 임신부 체조, 강의, 만들기, 조별 나눔과 식사로 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엄마와 아기를 축복하는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며 말씀을 통하여 엄마의 영적 회복을 돕는다. 체조 시간을 통하여 굳어진 몸을 풀어 주고 생명의 신비 영상물을 통하여 생명의 시작을 보게 된다. 전문 강사들을 통하여 태교와 태담 자연분만과 모유 수유 신생아 돌보기 강의로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만들기 시간을 통하여 태담을 들려줄 사랑의 전화기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감싸게 될 속싸개를 직접 바느질을 하면서 말씀을 새겨 넣어 말씀의 강보로 만들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말씀의 강보로 아기를 덮게 한다. 5주 차에는 자연태교로 자연 가운데 나아가 태교카드를 가지고 호수를 바라보며 야트막한 산을 오르며 비밀스러운 오솔길을 걸으며 아기에게 이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태담 들려준다. 8 회기에는 수료식으로 가족들을 초대하여 작은 발표회 시간을 가졌지만 지금은 6 주 차 마치면서 바로 수료식을 거행하고 있다.

평가 및 피드백

성품 태교 학교를 통해 참가자들은 먼저는 태 속에 있는 아기와의 관계를 세워나간다. 또한, 출산을 앞둔 산모들 간에 출산에 관한 정보와 삶을 공유하기도 한다. 더불어서 지역사회 의 병원과 산후 조리원들이 연결되기도 하고 후에는 자신들을 돌보아준 조장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연결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관계의 영역을 넓혀가고 그 관계의 영역은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넘어서서 영적인 공유에 이르게 되고 새중앙교회 영아부나 교구,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에 연결되기도 한다. 단순한 출산을 돕고 태교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영적 공동체와 관계를 맺게 하는 프로그램인 셈이다.

또 하나 프로그램은 부모와의 관계를 세우는 낙낙캠프이다. 10 대를 둔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이다. 대화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에 숨는 10 대들과 부모를 함께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낙낙캠프이다. 캠프 참가자들은 부모와 레크레이션도 하고 식사도 함께하며 속 이야기도 주고받는다. 캠프를 시작할 때 어두웠던 부모와 자녀의 얼굴은 캠프를 마칠 때쯤엔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또 하나의 의도는 캠프에 참여한 부모들을 학부모 서포터로 세워서 교회학교의 좋은 동역자로 연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부모와 함께하는 낙낙캠프

부모와 함께하는 낙낙캠프는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 간의 성경적 관계를 지향하며 회복을 꾀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1-4)는 말씀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정의 중요성이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에 낙낙캠프는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무너진 부모와 자녀의 회복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때 소통과 관계 회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기획되었다. 부모와 함께하는 낙낙캠프 운영으로 부모·자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욱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부모에게 신뢰받는 자녀로 자리매김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는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프로그램 기대 효과

낙낙캠프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 회복과 정체성 확립이다. 종종 사역의 현장에서 부모의 권위에 눌려 있어서 자기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의 관계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둘째, 부모님에 대한 이해와 관계 회복에 있다. 아버지의 세대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요즘 세대와 변화하는 다음 세대를 자신들의 가치에서 판단하는 기성세대의 간격을 좁혀주며 회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꿈과 비전 찾아주고 부모와 공감하고 각 부서의 사역자들과 연결하는 것이다. 낙낙캠프는 자녀의 진로와 적성 꿈에 대해 깊이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 공감하고 참여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회학교 서포터스에 가입시켜 교회학교의 영적 질적 도움을 얻고자 한다.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방식

프로그램의 흐름은 아래의 표와 같이 진행된다.

<표 5> 낙낙캠프 진행안

| 낙낙(Knock樂)캠프 진행안 | | | | |
|------------------|-------------|-----|-------------|-------------------------|
| 만남일시: | | 장소: | | 강사: |
| 순서 | 시간 | 분 | 주요진행사항 | 세부 준비사항 |
| 1 | 10:00-10:30 | 30 | 테이블 셋팅 및 준비 | 테이블, 음향, 조명 외 준비물 점검 |
| 2 | 10:30-10:40 | 10 | 기도회 | |
| 3 | 10:40-11:10 | 30 | 지원자 접수 및 안내 | 사진촬영, 조표시, 지원자명단, MR |
| 4 | 11:10-11:30 | 20 | 오프닝 및 환영인사 | |
| 5 | 11:30-12:00 | 30 | 도전 골든벨 | 워크북, 고무줄, 풍선 스티커, 문화상품권 |
| 6 | 12:00-13:00 | 60 | 점심식사 | |
| 7 | 13:00-15:00 | 120 | 액션메쏘드 | |
| 8 | 15:00-15:10 | 10 | 영상물 시청, 허깅 | 까치 영상 |
| 9 | 15:10-16:00 | 50 | 부모강의, 자녀강의 | 자녀 강의실 이동 |
| 10 | 16:00-16:20 | 20 | 사랑의 글쓰기 | 고마운 것, 미안한 것, 편지쓰기 |

| | | | | |
|----|-----------------|----|--------|------------|
| 11 | 16:20- 16:22 | 2 | 자녀 이동 | 도열 및 허깅 |
| 12 | 16:22- 16:45 | 23 | 글쓰기 나눔 | 워크북 편지 나눔 |
| 13 | 16:45- 17:05 | 20 | 전체 나눔 | 선물 |
| 14 | 17:05- 17:07 | 2 | 영상물 시청 | 어머니의 발 영상 |
| 15 | 17:07- 17:10 | 3 | 자녀 퇴장 | 세족식 준비 |
| 16 | 17:10- 17:35 | 25 | 세족식 | 자녀가 부모님 세족 |
| 17 | 17:35- 17:40 | 5 | 수료식 | 수료증, 서약서 |
| 18 | 17:40- 17:45 | 5 | 동영상 | 리뷰영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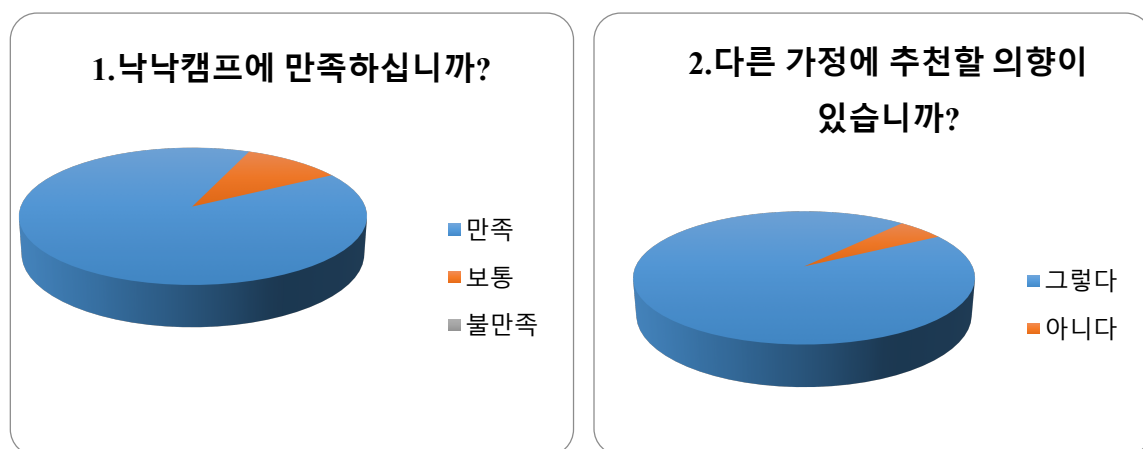
오프닝과 포토존 미션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여 프로그램에 관한 호감도를 배가시킨다.

도전 골든벨을-예를 들면 자녀가(부모가)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가?-통하여 자녀와 부모가 서로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 시간은 서로 얼마나 모르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가를 오락요소를 담아 자각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이어서 액션메소드 시간에는 활동 시간을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즐겁게 활동하며 남아있는 어색함을 풀어내는 시간이다. 까지 영상은 부모님에 대한 감동적인 영상으로 자녀들이 이어지는 교육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강의 이후 서로에게 편지쓰기와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세족식으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첫 단계인 세족식을 하게 된다. 앞으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서로 간 표현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이다.

프로그램 평가

다음의 표는 프로그램 2기 참가자들의 만족도에 설문에 관한 통계자료이다.

<표 6> 낙낙캠프 설문 통계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015년도 9월 제2기 낙낙캠프를 마치며 소감문을 받았을 때 총 19가정에서 만족한다는 가정이 17가정(약 89.5%), 보통이라고 대답한 가정이 2가정(약 10.5%)이 있었으며, 18가정(약 95%)은 다른 가정에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 피드백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봤을 때, 낙낙캠프는 소원해진 가족 구성원간 유대관계를 가까이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 참여한 가정들의 소감은 다음과 같았다. “가슴이 벅차다. 너무 좋았다.”, “아이와 오랜만에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 “아이의 상태를 알게 되어 좋았다.”, “엄마와 가까워져서 좋았다.”, “아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어 좋았다.”, “뜻 깊고 재미있었다.”, “귀찮았지만 막상 해보니 좋았다.”, “부모님께 죄송한 점, 감사한 점을 많이 생각해볼 수 있던 것이 좋았다.”,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낙낙캠프 이후 캠프 지원자의 부모들은 부서 교역자와 연결되어 중고등부 서포터스로 섬기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교회학교에 부모의 참여를 극대화 시킨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또한 이들이 적극적으로 다음 참가자들을 참여시키고 카페 활동을 하는 등 프로그램의 재생산에 큰 도움을 주었다.

참여와 경험 관계를 세우는 유스비카 사역

2005년부터 시작된 새중앙교회 중고등부는 학생들과 현장에서 만나 관계 맺기 위해 학교 심방 사역을 시작했다. 이 학교 심방을 통해서 교역자와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 원활해지고 조직을 관리 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 학교 심방은 효율성과 의미적 측면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간식을 사 들고 가서 학생들을 만나는 방식의 교제는 그들과 끈끈한 관계 형성에 제약이 되었다. 또한, 한국사회에 만연된 개인화 현상은 교회 공동체의 소속감과 지체를 돌보는 마음의 부재를 가져왔다. 그렇기에 이러한 방식의 심방은 그들에게 소속감도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조차도 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방식의 캠퍼스 사역을 시작한 것이다.

2016년 인근 미션 스쿨인 백영고 부활절 집회를 새중앙교회가 후원하는 스쿨임팩트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전도된 친구들을 학교 안에서 훈련할 기회가 생겼다. 이후 백영고에 다니는 본 교회 학생들과 전도된 새 신자를 중심으로 달화 (달콤한 화요일) 예배를 통해 캠퍼스 사역의 첫 토대를 닦았다.

매주 화요일 예배하며 2016년 7월 1학기 마지막 달화예배¹³에서 교내 초청 집회를 통해 캠퍼스 전도사역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이후 중고등부는 학교별 기도 모임을 지속해서 도전하였고, 2016년 11월 이 사역을 ‘유스비카’로

¹³ 달콤한 화요일예배의 줄임말로 인근 학교인 백영고에서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예배이다.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중고등부 연합 동계수련회에서 유스비카를 도전하고 리더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14개의 중학교와 10개의 고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생겨났다. 유스 비전 캠퍼스 사역은 학교별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7년 7월에는 유스비카 리더십 워크숍을 통해 2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9월에는 초청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무너져 가는 다음 세대가 다시 회복되어 세워지기 위하여 유스비카는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 외에도 교내 전도 집회, 초청 부흥 집회, SNS 사역을 통해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유스비카 사역의 연계 사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새중앙교회 중,고등부 교복데이

새중앙교회 중등부와 고등부에 나오는 학생들은 특성화고를 포함 40여 개의 학교를 고루 다니고 있다. 그래서 교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의 필요를 느끼고 더 나아가 지역을 연결하는 사역의 필요를 느꼈다. 그것이 바로 비전 캠퍼스 사역이다. 학생들의 선교적 삶을 위해 우리는 작게는 교회에서 연결하고 더 크게는 지역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세웠다. 그 첫 프로그램이 교복데이이다

교복데이

교복데이는 학기 초(3월, 9월) 첫 주일예배 시간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본격적으로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며, 학교별로 관계를 맺어주는 프로그램이다. 특별히 학생들은 직접 각 학교의 교복을 입고 참여하여 소속감을 고취하며, 특별한 마음을 갖게 한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 각 학교의 기도 모임과 연결되어 주중 학교 기도 모임의 동역자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히 유스비카 사역과 큰 연관을 갖는다. 유스비카는 학교기도 모임 운동을 뜻하는 운동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복데이를 기획하게 되었다. 개개인의 연결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형교회 특성상 유스비카 학교기도모임 운동에 참여하자고 개개인에게 독려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교복데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을 찾고, 학교별 리더십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이다.

프로그램 기대효과

프로그램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복을 입고 예배함을 통하여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마음을 고취하는 것이다. 학교의 현장에서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들어내 놓는 청소년들이 극히 드물어지고 있다. 학교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는 공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신앙과 삶의 일치는 그들의 교복을 학교에 입고 옴으로 인해 상징적으로 보인다. 둘째, 학교별 구성원들을 파악하여 더욱 힘있게 유스비카 기도 모임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복데이는 한 학교에 다니는 동문이지만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지내는 청소년들 간에 연결의 통로이기도 하다. 셋째, 학교별로 친구들과 선후배를 연결하여 더욱 재미있는 학교, 교회 생활이 되게 하는 것이다. 각 학교의 카톡방과 예배의 공동체 사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기도 하다.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방식

예배의 세부적인 진행 방식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7> 행사 큐시트

| 교복데이 진행안 | | | | |
|-------------|----|--------------|--|--|
| 시간 | 분 | 주요진행사항 | 세부 준비사항 | |
| 08:30-09:00 | 30 | 준비 및 기도회 | 학교별 명패, 자리배치표, 안내 | |
| 09:00-09:02 | 2 | 기도 및 사도신경 | | |
| 09:02-09:20 | 18 | 학교별 찬양 및 기도회 | 교복을 입고 학교별로 자리에 위치 | |
| 09:20-09:22 | 2 | 대표기도 | | |
| 09:22-09:45 | 23 | 설교 및 기도회 | <p>“말씀에 승부를 걸자!” (행19:8-10,20) <기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 2. 동역자들(친구, 선생님)을 위해 3. 유스비카 기도모임을 위해 4.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 |
| 09:45-09:50 | 5 | 봉헌기도 및 봉헌 | | |
| 09:50-09:53 | 3 | 광고 및 축도 | | |
| 09:53-10:10 | 17 | 학교별 모임 | 유스비카 리더쉽을 중심으로 - 기도모임 시간 장소 안내, 학교별 자기 소개 | |

교복데이의 진행방식은 주일 예배로 모여 학교별 좌석에 앉게 한다. 이때 교역자들도 교복을 준비하여 착용하고 예배를 드린다. 말씀에 대한 도전은

교복데이의 개념에 맞게 공동체성과 신앙과 삶의 일치에 대한 메시지를 담는다. 또한, 미리 선출된 학교별 리더십을 중심으로 기도 모임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갖고 분반 시간 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친구들이 비전 캠퍼스 담당교사와 함께 학교 카톡방과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예배 개척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프로그램 평가

교복데이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예배를 통하여 신앙과 삶의 일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들은 학교 생활에서 교회와 분리된 삶을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 회개하게 되었고,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교회에 대한 긍지도 갖게 되었다고 밝힌다. 유스비카 리더들은 파악되지 않던 학교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겠다는 친구들이 많이 세워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카톡방과 카카오페이지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캠퍼스예배를 활성화할 수 있었으며 각 학교의 기도회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늘어났다고 말한다.

달콤한 화요일 예배

이 프로그램은 학교생활, 입시제도 속에서 삶에 여유가 없는 친구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매주 화요일 교회 근처에 있는 미션스쿨인 백영 고등학교 생물실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새중양교회 학생들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미션스쿨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백영고등학교의 상황에서 교목과 협의하여 지역교회 기독교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연결하는 목적 속에서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성된다.

<표8> 달콤한 화요일 진행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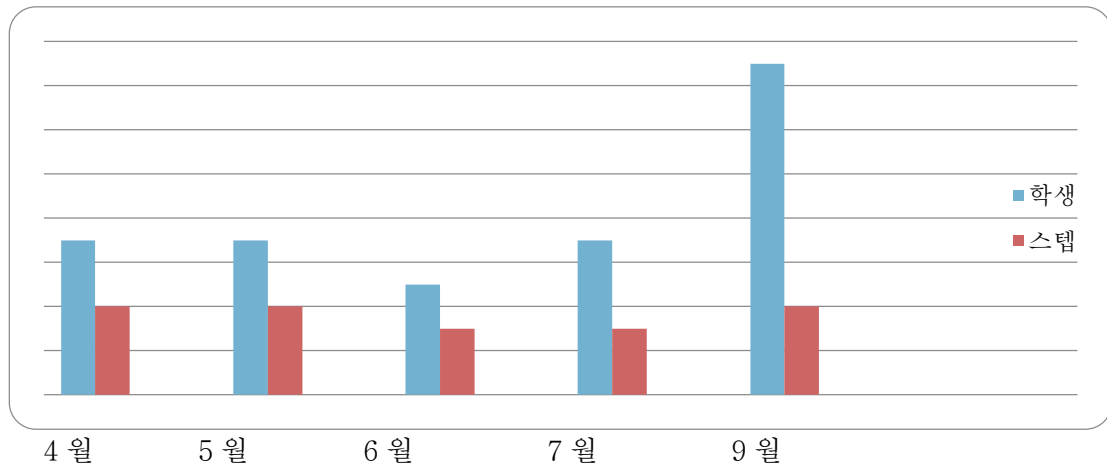
| 시 간 | 내 용 | 담당자 |
|-------------|--------------------------------------|---------|
| 13:00-13:10 | ♫ 환영 및 찬양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주께 가까이' | 나웅규T |
| 13:10-13:20 | ♫ 말씀나눔 "데오빌로의 행전을 써가자!" (행 1:1-5) | 박재관 목사 |
| 13:20-13:30 | ♫ 기도시간 기도제목 나눔, 축복과 격려 | 전기호 강도사 |

백영고의 점심시간은 고 3 이 12 시에 식사를 하고 나머지 학년이 1 시에 식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고 1, 2 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물론 식사를 일찍 마친 고 3 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주는 예배가 점차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첫 시작은 새중앙교회 학생들과 기독교 동아리 임원으로 구성되었지만 점차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는 참가자들을 통해 채워지고 있다.

결과 및 평가

아래의 표는 달콤한 화요일의 성장 현황이다. 처음 예배를 시작 할 당시에는 새중앙교회의 학생 일부로만 구성되었다. 하지만 2 학기 들어서 2 배 이상 성장하였고 꾸준히 참여하는 친구(15 명)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의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7 명). 이들에게 매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고무적이었다.

<표 9> 참석현황 통계표



무엇보다도 달화 예배를 통해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의 예배에 대한 요청이 활발해졌다. 이것을 통해 유스비카 사역이 풍성해 짐은 물론이고 학교 기독교동아리들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유스비카 부흥집회

유스비카 부흥 집회는 2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주어 기도 모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각 지역학교의 기독교 동아리 리더들을 연결해주고 새중앙교회를 넘어서 지역 복음화를 펼쳐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2학기 유스비카 기도(예배) 모임에 대한 헌신 하도록 독려하며 함께 기도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공동체성을 재확인 하는것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새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의 청소년 사역의 부흥을 도모한다.

프로그램 진행사항

먼저는 개학 후 첫 주일 교복 데이를 통하여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도전하고 부흥 집회를 알려서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집회 시작 전 3주간의 홍보 기간에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전도 용품(건빵과 전도지)을 통해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집회에 초청한다.

홍보 기간에는 교역자와 비카교사가 인근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함께 기도 모임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도전한다.

페이스북 페이지(SNS)를 개설, SNS를 통한 인근 지역 그리스도인 학생들을 동참케 한다. 부흥 집회 당일 임팩트 있는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해 모인 학생들이 결단케 한다.

<표10> 유스비카 예배 순서표

| 시간 | 내용 | 비고 |
|------------------|-------------|----------|
| - 18:30 | 무대 셋팅 및 리허설 | 김신유 전도사 |
| 18:30 - 19:00 | 찬양 | 비전위십 |
| 19:00 - 19:03 | 대표기도 | 전기호 목사 |
| 19:03 - 19:05 | 유스비카 영상 | 전기호 목사 |
| 19:05 - 19:20 | 찬양 및 간증 | 가수 아이엠 |
| 19:20 - 20:10 | 말씀 | 황덕영 담임목사 |
| 20:10 - 20:30 | 기도회 | 이민호 목사 |
| 20:30 - | 교제의 시간 | 간식 나눔 |

결과 및 평가

부흥 집회 이후에 학교 리더를 중심으로 주중 기도 모임 및 유스비카가 확장되었다. 청소년들이 학교의 현장에서 기도 모임을 세우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예배를 드리는 학교가 생겨났다. 작은 큐티 모임이나 나눔 모임을 통해 학교에서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겠다는 학생들이 일어나고 있다.

다음의 표는 부흥집회 이후에 한 학기 동안 개설된 유스 비카의 모임 현황이다.

<표 11> 2017 년 유스비카모임 현황

| 구분 | 학교 | 리더 | 모임장소 | 모임시간 | 인원 (명) |
|---------|------|------------|-----------|------|-----------|
| 중등 부 | 대안여중 | 서나영 | 운동장 | 점심시간 | 6 |
| | 의왕중 | 이준희 | 교과 협의실 | 점심시간 | 3 |
| | 신기중 | 임선진 | 미술실 | 점심시간 | 20 |
| | 반월중 | 신소영 신소은 | 영어실 | 방과 후 | 5 |
| | 홍진중 | 오채은 | 3-6반 | 방과 후 | 7 |
| | 평촌중 | 김찬양 | 음악실 | 점심시간 | 15 |
| | 금정중 | 전예원 | 음악실 | 방과 후 | 30 |
| | 연현중 | 김요셉 | | | 1 |
| | 부림중 | 박희진 | 음악실 | 점심시간 | 20 |
| | 부안중 | 김동현 | 수학교과실 | 점심시간 | 10 |
| | 귀인중 | 성의창 | 음악실 | 점심시간 | 10 |
| | 임곡중 | 김동현 | 음악실 | 점심시간 | 25 |

| | | | | | |
|---------|------------|-------------|-------------|-----------------|---------|
| 고등 부 | 호계중 | 최은솔 | 방과후교실 | 점심시간 | 20 |
| | 갈피중 | 류승연/ 예린 | 음악실 | 점심시간 | 2 |
| | 군포고 | 문지수 | 컴퓨터실 | 점심시간 | 10 |
| | 백영고 | 윤현수 | 생물실 | 점심시간 | 25 |
| | 성문고 | 김정근 | 기도실 | 점심시간 방과 후 | 7 10 |
| | 관양고 | 김성민 | 강당 |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 | 25 |
| | 안양고 | 김태희/ 홍주원 | 음악실 | 점심시간 | 10 |
| | 동안고 | 정찬윤 | 학교공터 | 점심시간 | 5 |
| | 평촌고 | 김준하 | 가사실 | 점심시간 | 7 |
| | 평촌공고 | 윤여찬 | 학교앞 일심교회 | 방과 후 | 4 |
| | 글로벌 통상고 | 최혜림 | 학교공터 | 방과 후 | 2 |
| | 헤이븐 | 오소진 | 채플실 | 점심시간 | 5 |

총인원

284명

부흥 집회를 진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스 비카 사역은 탄력을 받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부흥 집회를 통해 각 학교의 리더들이 연결되고 각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들이 연결되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백영고의 채플 예배도 늘어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청소년부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 연결과 참여가 공동체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스비카 리더십 기도회

유스비카 리더십 기도회는 매주 유스비카(기도 모임)운동에 힘쓴 학생 리더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그 주에 있었던 기도 모임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기도해 주는 데서 시작 되었다.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한 주 한 주 수고에 대한 격려와 위로하며 학교별 기도 모임 사역에 대한 공유와 다음 주, 다음 달의 사역에 대한 제언을 기대한다. 또한, 함께 기도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공동체성 재확인이 유스비카 리더십 기도회의 목적이다.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은 매주 주일 10시 30분 청소년 예배 후에 담당 교역자의 지도로 이루어진다. 이때 고등부와 중등부의 구분 없이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을 담당하는 리더들이 자유롭게 중등부실에 모여서 진행한다.

프로그램 진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①대표기도로 시작
- ②기도 모임 한 주간 있었던 일들 나누기
- ③기도 모임 방향성 제시
- ④기도 제목 공유
- ⑤기도회
- ⑥마무리 기도

이 순서가 끝나면 리더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하고 학교로 파송되는 의식을 진행한다. 또한 진행하면서 응답받은 삶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치유를 경험하기도 한다.

프로그램 평가

다음은 기도 모임에 참가한 리더들의 피드백을 정리한 것이다. 특별히 이들은 비카 리더를 세우기 전에는 예배시간을 잘 지키지 않았던 학생들이다.

-최정민(평촌중학교 리더)

저는 이번 연도부터 전 리더였던 찬양이 오빠 다음으로 기도 모임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많이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를 통해 매번 다시 결단하고 무장했던 것 같습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기도회를 하면서 각자 학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 힘든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고 함께 학교는 다르지만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다은(대안여중 리더)

우리 학교는 기도 모임 장소가 없어서 운동장에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매번 기도회 때 장소를 위해 기도 제목을 냈었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믿지 않는 선생님께서 저희가 매주 운동장 벤치에서 하는 모습을 보시고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장소를 구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 때 우리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나누며 다른 학교 리더들도 도전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윤지(부림중학교 리더)

저는 유스비카 리더 기도회를 전 리더였던 언니를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리더 들끼리 이야기하며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그 때는 별 고민이 없었는데 막상 기도 모임 리더가 되다 보니 고민과 걱정거리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언니들이 나누고 기도했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리더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나눴었구나 하는 것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다 보니 서로의 학교사정들을 알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서로가 경험했던 일들, 잘되었던 점, 실패했던 부분들을 나누면서 우리 기도 모임에 팀을 얻을 수도 있었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조언을 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하는 기도회의 형식과 모습들을 학교 기도 모임에 실제 적용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던 모습들,

또 다른 리더 언니 오빠들의 모습을 보며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위 학생들의 소감처럼 비카 부흥 집회가 단회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임팩트 있는 성장을 거두게 했다면 리더십 기도회 모임은 서로에게 영적 종기 부여를 주고 있다. 기도하기 힘들었던 리더들은 기도의 삼겹줄로 연결되어 기도 응답의 간증과 기도의 동기부여 및 학습을 하게 되었다.

각 학교의 리더들은 매 주일 기도 모임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더 나아가 함께 고민하는 동역자들과의 연결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 고충을 나누며 힘을 주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도회가 있기 전 이들은 교회공동체에서 서로를 향해 관심이 없었다. 학교 안에서 신앙생활의 적극성을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유스비카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은 연결 공동체가 되었고 학교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서로에 대해 무심한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었던 구성원들이 연결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학교 안에서 새로운 비전 캠퍼스들이 생기고 이것이 학교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연결의 힘을 알 수 있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되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연결의 힘은 더 큰 관계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새중앙교회의 EPIC 프로그램의 반응과 평가

논자는 EPIC 프로그램을 경험, 참여, 이미지와 상징, 연결이라는 4가지의 영역을 부분적으로 설명했지만, 새중앙교회 교육의 전 영역에 EPIC의 요소를 골고루 안배하며 진행하려고 애쓴다. 구분하여서 프로그램을 소개 하였지만 융합적인 EPIC 프로그램이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형교회라고 교회학교가 성장하는 것

은 아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대의 도전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울 때 무너지지 않고 이겨 낼 수 있다.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을 키우는 것이 새중앙교회의 교육 목표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세대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꽃피우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EPIC의 원리 중심은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 우리는 방법론과 같은 지극히 전달자 중심의 자세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EPIC의 진정한 원리는 수신자를 이해하는 관심이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의 중심에는 사랑과 관심이 있었듯이 절대적인 것이 무너지는 포스트모던사회의 다음세대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몸부림쳤던 것이 EPIC 프로그램이었다.

제 V 장

요약 및 결론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시대정신인 포스트모던 세대를 향한 시대적인 움직임과 특성을 이해하고, 레너드 스윗의 연구와 그것을 적용한 새중앙교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포스트모던의 이해를 통해 포스트모던 세대의 핵심가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래교회 학자인 레너드 스윗 교수의 EPIC 이론을 통하여 포스트모던 세대와 소통하는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다. 스윗의 주장대로 포스트모던 세대에게는 경험(Experience)이 중요하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과제임을 확인했다. 또한 포스트모던 세대는 참여(participation)를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간다. 그리고 포스트모던 세대는 이미지(Image)를 추구한다. 교리적이나 현학적인 가치보다는 실제적인 이미지나, 이야기 은유를 통해 존재를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스윗은 연결(Connect)을 포스트모던세대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들을 연결해서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새중앙교회에서 시도된 EPIC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분석해보았다.

연구의 결론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보았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수많은 도전 앞에 서 있다. 그 도전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워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것인가는 이 세대를 위해 목회하는 목회자의 몫 임에 틀림이 없다.

교회를 향한 수많은 도전 앞에서 시대정신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할 대안이 필요하다. 논자는 이러한 대안의 도구로 레너드 스윗의 EPIC 프로그램을 교회에 접목해 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참여를 통해 더 깊은 사역의 장으로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통해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으며, 교회가 관계를 맺게 해주는 연결의 통로로 사용되어 수많은 사람을 연합하게 하였다. 이것이 새중앙교회의 규모와 특수 상황 안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 교회들이 EPIC 프로그램을 도구로 사용하여 포스트모던 세대에게 접근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은혜가 풍성한 사역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부록1. 선교학교 세부일정

1 주차 선교학교 세부사항

| 시간 | 내용 | 담당자 | 비고 |
|-------------|------------------|-----|---|
| -10:00 | 준비 | 000 | 준비기도/ 현수막확인 핸드북 / 명찰 확인 테이블 셋팅 /출석확인 음향, 조명 확인 |
| 10:00-10:15 | 찬양 | 000 | 찬양 ppt |
| 10:15-10:20 | 대표기도 | 000 | |
| 10:20-10:30 | 오리엔테이션 | 000 | |
| 10:30-12:30 | 한국선교역사 강의 | 000 | 강의 자료 확인, 물 |
| 12:30-12:40 | 광고, 주제제창, 주제곡 | 000 | |
| 12:40-12:43 | 축도 | 000 | 강사 사례비 확인 |
| 12:43- | 식사 후 귀가 | 000 | 식권준비 /뒷정리 확인 |

2,3 주차 프로그램

| 시간 | 내용 | 담당자 | 비고 |
|-------------|------------------|-----|------------------|
| -10:00 | 준비 | 000 | 1 주차와 동일 |
| 10:00-1:15 | 찬양 | 000 | 찬양 ppt |
| 10:15-10:20 | 대표기도 | 000 | |
| 10:20-10:35 | 선교 간증 | 000 | 간증 자료 확인 |
| 10:35-11:15 | 조별 소감 발표 | 000 | 발표 자료 확인 |
| 11:15-11:45 | 선교 특강 | 000 | 특강 자료 확인, 물 |
| 11:45-11:55 | 격려사 | 선교부 | 물 |
| 11:55-12:10 | 수료증 수여식 | 선교부 | 수료증확인, 대독자 확인 |
| 12:10-12:15 | 광고, 주제제창, 주제곡 | 000 | |
| 12:15-12:18 | 축도 | 000 | 강사 사례비 확인 |
| 12:18- | 식사 후 귀가 | | 식권 확인 뒷정리 확인 |

4 주차 선교학교 세부사항

| 시간 | 내용 | 담당자 | 비고 |
|-------------|----------|-----|--------------|
| 8:30 | 조별로 집결 | 조장 | 조별 차비, 식사비지급 |
| 8:30-10:00 | 양화진으로 이동 | | |
| 10:00-12:00 | 양화진 탐방 | | |
| 12:00-12:30 | 점심식사 | | 조별로 자유롭게 식사 |
| 12:30- | 귀가 | | |

5 주차 선교학교 세부사항

| 시간 | 내용 | 담당자 | 비고 |
|-------------|------------------|-----|--|
| -10:00 | 준비 | 000 | 준비기도 현수막 확인 핸드북, 명찰 확인 테이블 셋팅 출석 확인 음향, 조명 확인 |
| 10:00-10:15 | 찬양 | 000 | 찬양 ppt |
| 10:15-10:20 | 대표기도 | 000 | |
| 10:20-10:30 | 오리엔테이션 | 000 | |
| 10:30-12:30 | 한국선교역사 강의 | 000 | 강의 자료 확인, 물 |
| 12:30-12:40 | 광고, 주제제창, 주제곡 | 000 | |
| 12:40-12:43 | 축도 | 000 | 강사비 확인 |
| 12:43 | 식사 후 귀가 | | 식권 확인 뒷정리 확인 |

부록 2. 태국 단기선교 최종보고서

- a. 주제: “만 명의 선교사 한 자리는 저에게 주십시오!”
- b.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 c. 주제찬양 : 보내소서
- d. 일정 : 2013년 2월 11일(월) 05:30 ~ 17일(주) 06:35
- e. 지역 : 태국 치앙마이, 치앙라이 지역 ‘메콩강공동체’
- f. 청소년 단기선교학교 준비모임

*1 차 준비위원회

- 일시: 2012년 10월 21일 주일 16:00
- 내용: 단기선교 모집에 대해

*2 차 준비위원회

- 일시: 2012년 10월 28일 주일 16:00
- 내용: 단기선교 모집에 대해, 신청서 우편발송

*3 차 준비위원회

- 일시: 2012년 11월 18일 주일 16:00
- 내용: 신청자 파악, 준비모임에 대해

*4 차 준비위원회

- 일시: 2012년 11월 25일 주일 16:00
- 내용: 준비모임 기말고사 이후 토요일로 결정

g. 단기선교 준비모임

* 1 차 단기선교 준비모임

- 일시: 2012년 12월 15일 토요일 09:00
- 내용: 조배치, 기도회, 비전트립 개요설명

* 2 차 단기선교 준비모임

- 일시: 2012년 12월 22일 토요일 09:00
- 내용: 정탐보고서 발표, 기도회, 특별모임(찬양, 위십)시작

* 3 차 단기선교 준비모임

- 일시: 2012년 12월 29일 토요일 09:00

- 내용: 기도편지 강의, 기도회, 팀별모임, 기도편지 작성

* 4차 단기선교 준비모임

- 일시: 2013년 1월 4일 금요일 19:00

- 내용: 기도회, 팀별모임, 선교란 나눔

* 5차 단기선교 준비모임

- 일시: 2013년 1월 11일 금요일 19:00

- 내용: 기도회, 팀별모임, 선교란 나눔

* 6차 단기선교 준비모임

- 일시: 2013년 1월 18일 금요일 19:00

- 내용: 기도회, 팀별모임, 선교란 나눔

* 단기선교팀 MT

- 일시: 2013년 1월 21-22일 월-화요일 14:00

- 내용: MT

- 장소: 새중앙교회 본당 영아부실

* 7차 단기선교 준비모임

- 일시: 2013년 1월 25일 금요일 19:00

- 내용: 기도회, 팀별모임, 선교란 나눔, 후원사업 회의

* 후원사업 준비

- 일시: 2013년 1월 26일-2월 9일

- 내용: 조별 후원사업 물품 제작

* 8차 단기선교 준비모임

- 일시: 2013년 2월 1일 금요일 19:00

- 내용: 기도회, 팀별모임, 선교란 나눔, 후원사업 준비

* 1차 후원사업

- 일시: 2013년 2월 3일 주일

- 내용: 후원사업 기도편지 배포

* 2차 후원사업

- 일시: 2013년 2월 10일 주일

- 내용: 후원사업 기도편지 배포

* 9차 단기선교 준비모임

- 일시: 2013년 2월 8일 금요일 19:00
- 내용: 기도회, 팀별모임, 선교란 나눔, 후원사업 준비, 파송예배 준비

h. 파송예배

- 일시: 2013년 2월 10일 주일 10:00
- 내용: 단기선교 파송예배 특송, 기도회

i. 태국단기선교

- 일시: 2013년 2월 11일-17일 월요일-주일
- 내용: 비전트립

j. 태국단기선교 후기모임

- 1) 일시: 2013년 2월 18일 화요일 13:00
- 2) 내용: 나눔, 식사, 감사선물제작

h. 세부일정

첫째 날(2/11)

- 05:30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버스타고 출발
- 06:50 인천공항 도착
- 09:39-13:07 인천-방콕 이동 *태국시간 적용
- 13:20 공항셔틀버스를 타고 감
- 15:30-16:30 방콕-치앙마이 이동
- 16:30 김웅선교사 만남, 호텔로 이동
- 18:30 야시장으로 이동
- 22:15 취침

둘째 날(2/12)

- 06:00 기상
- 07:00 아침식사(호텔조식)
- 09:00 음악학교(SAS)
- 10:35 란다 수공예단지(우산)
- 11:40 란다 수공예단지(목공예, 비단)
- 12:10 란다 수공예단지(보석)
- 14:00 호텔 점심식사
- 15:10 온천 휴게소
- 18:00 저녁식사(마트)
- 19:15 메짬공동체 도착
- 20:40 정도연 선교사님 강의

셋째 날(2/13)

05:00 기상
 05:30 새벽기도회
 07:40 아침식사, 설거지
 09:00 이동, 중간에 지프(4WD)를 타고 산족마을로 이동
 11:05 아세카마을(산족)¹
 12:10 팔라교회², 점심식사
 14:10 빠갈레마을교회³
 14:45 차가 무거워 등산
 14:50 붉은라후족 교회⁴
 15:50 깨루안마을교회
 16:30 흔들다리를 건너 차를 타고 이동
 17:00 빠마이공동체 도착
 18:30 저녁식사
 19:30 저녁예배, 레크레이션
 21:10 김웅 선교사님 강의(메콩강공동체 발자취)
 10:00 취침

넷째 날(2/14)

05:10 기상
 06:00 새벽기도회 및 세면
 07:30 아침식사
 08:15 보트타고 이동
 09:30 코끼리 트래킹
 11:45 온천
 13:30 한식당 점심
 15:00 소수민족마을(아카족, 야오족, 라후족, 팔롱족(롱넵카렌))
 16:30 메짠공동체 도착
 18:00 저녁식사
 19:00 음악회(현지 목사안수식 축하공연)

¹ 아카족이 모인 마을. 아카족은 제일 높은 곳에서 살고 남자는 놀고 모든 일을 여자가 한다. 미신, 무당이 많다. 물을 무서워한다.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3 종류의 고신은 태어나기 전 죽은 아이, 결혼하기 전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아이 귀신이다.

² 팔라교회는 해발 1500m 정도에 위치해있다. 열심히 걸어오면 9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다. 이 팔라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이유는 신앙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³ 붉은라후족 마을이다. 마약문제가 가장 심각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21:00 신옥련 선교사님 강의(간증)
22:30 취침

다섯째 날(2/15)

05:30 기상 및 새벽기도회
07:30 말씀암송(엡 1), 아침식사 및 설거지
09:30 이동
10:00 왕비정원
12:00 원숭이공원
13:00 점심식사(마트)
14:30 메사이유아원
15:50 미얀마국경
17:10 배타고 이동 김웅 선교사님 골든트라이앵글 강의
18:00 라오스국경
19:10 골든트라이앵글교회 저녁식사
20:00 리조트에서 다과, 은혜 나눔
23:00 취침

여섯째 날(2/16)

07:30 기상
08:00 골든트라이앵글교회 아침식사
09:30 이동
11:20 국민당마을
12:20 점심식사
13:10 김웅 선교사님 국민당 66부대 강의
15:30 메짬공동체 도착
16:50 워십댄스나눔, 축복의 시간
18:00 공항으로 이동
06:35 * 다음날 인천도착

부록3. 태국 단기선교 참가자 간증문

“ 길면 길다고 할 수도 있고 짧다고 하면 짧다고 할 수 있는 몇 주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월 11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태국 땅으로 첫 선교를 떠났다. 태국을 가기 위한 준비과정 속에서 재정이 부족하여 어려웠던 점도 많았다. 재정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채워달라고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였다. 태국을 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경건서적도 읽어 보았고 정도연선교사님께서 쓰신 ‘선교란’을 읽으면서 선교와 선교사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2월 11일 월요일 드디어 태국으로 떠나는 날 새벽 우리는 영아부실에 모여 찬양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 태국으로 떠났다. 처음 선교를 가는 나는 걱정과 기대와 설렘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항상 같이 있으면 즐겁고 재미있는 단기 선교 팀과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 도착했다. 태국은 더웠는데, 선교사님께서선 이 시기가 태국 오기에 좋은 시기라고 하셨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렸다. 약 6시간에 걸쳐 도착한 태국에서 우리가 처음 한 일은 야시장을 갔다.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태국의 시장. 신기한 물건들을 많이 팔았고 사고 싶은 물건들도 많았다. 야시장에서 기념품과 그 자리에 없었던 몇몇의 친구들을 제외하고 우리 조의 추억이 될 만한 손목시계를 하나씩 맞췄다. 사고 나서 얼마나 즐겁고 기뻐했는지... 추억이 될 만한 게 생겨서 정말 좋았다. 숙소로 돌아와서 모임을 하고 그렇게 태국에서의 첫날밤이 지났다.

2월 12일 화요일 아침을 먹고 한글학교 겸 음악학교를 찾아갔다. 20년이 되었고 제3의 한인교회이기도 한 곳 이었다. 선교사님들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차근차근 이곳을 만들어가셨다. 선교사님께서 인내심을 갖고 세우신 소중한 곳 이었다. 그 다음 우리가 간 곳은 대규모의 수공예단지였다. 우산 만드는 곳, 가구 만드는 곳, 보석 만드는 곳을 갔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가구 만드는 곳 이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겠고, 똑같은 나무지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 용도가 될 수 있었다. 우리가 가진 재능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하루를 여러 가지를 보며 보냈고 저녁시간에는 정도연 선교사님의 특강을 들었다. 소명과 순종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고 특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소명이 맞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2월 13일 수요일 처음으로 가본 태국에서의 새벽예배. 우리와 조금 다른 모습에 신기했고 심히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 식사 후 가위바위보로 설거지하는 조를 뽑았는데 우리 조가 걸렸다. 우리 조 애들에게 미안한 마음

반, 남들이 안 해본 일을 하면서 또 새로운 추억을 쌓는 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 반으로 설거지를 했다. 짐을 챙겨서 산족 사람들을 만나러 출발했다. 우리는 산에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다. 그들의 역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마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안쓰러웠고 이렇게 길도 험하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포기하지 않으시고 몇 번이고 계속 오신 선교사님들이 대단하고 존경스러웠다. 저녁에 빠마이 공동체에 도착했다. 빠마이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우리가 열심히 몇 주간 준비해온 ‘좋은신 하나님’ 과 ‘호산나’ ‘해 뜨는 데부터’ 를 보여주었고 그 아이들도 우리에게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말이 통하진 않았지만 서로 친해질 수 있었다.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빠마이 아이들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작은 일에도 불평하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 아이들과 다음에도 또 다시 만나고 싶었다. 너무나 낮은 우리에게 잘해주고 미소 지어준 그 아이들이 보고 싶다.

2월 14일 목요일 빠마이에서 아이들과 슬픈 이별을 하고 아침식사를 하고 떠났다. 우리는 강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보트를 탔다. 보트에서 내리고 동물원에서만 봤던 코끼리를 타게 되었다. 코끼리를 타고나서 물이 좋다고 소문난 온천에도 가고 한식당에도 갔다. 한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보았을 때 감격했다. 태국에선 못 볼 것 같았던 된장찌개가 내 눈앞에!!!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롱넥 카렌족’ 을 만나러 갔다. 그들의 역사를 들었고 먹고 살기 위해 목에 있는 장신구를 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사진 찍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으시고 친절히 같이 찍어주셔서 감사함을 느꼈다. 저녁에 한국에서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음악회를 하셨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였고 즐거웠다. 신옥연 선교사님의 특강을 들었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2월 15일 금요일 현 국왕의 어머니인 여왕님께서 별장으로 지으신 정원에 갔다. 그곳은 정말 아름다웠다. 여러 종류의 꽃들이 피어있었고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국민들을 사랑하셔서 소수민족까지 배려해주신 여왕을 통해 태국 왕실이 국민들에게 존경 받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점심을 먹고 유치원에 갔다.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까지 태국에서 봤던 아이들 중에 가장 어린 아이들이었다. 순수한 아이들은 우리가 풍선으로 칼과 강아지를 만들어주니까 엄청 좋아했다. 하지만 더 예쁘고 멋있는 것을 만들어 주지 못해 미안했고 한국에서 풍선아트를 배우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아이들과 헤어지고 우리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갔다. 메콩강을 배를 타고 건너면서 우리는 공동체가 지은 교회를 보았고 그곳에서 많이 멀지 않는 곳에 불상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참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했고 얼른 그 불상이

없어지는 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린다. 배를 타고 라오스로 갔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것은 아이들이었다. 관광객에게 구걸하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정말 안타까웠다. 처음에 슬픔을 느꼈고 그 다음은 그것을 숙명으로 여기고 사는 아이들이 안타까웠고 나중에는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어른들은 방관만하고 아이들이 구걸을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에 화가 났다. 우리나라도 한때 저런 시절이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시 빨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저런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라면 나는 미래에 이런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무튼 라오스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으며 다시 배를 타고 태국으로 돌아갔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던 일이 있었다. 내 자 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많이 반성했다. 마지막 밤에 태국에서 받았던 은혜나누기를 하였다. 아이들 하나하나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았다. 서로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공유하며 마지막 밤이 지났다.

2월 16일 토요일 교회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중국인 마을에 갔다. 중국인 마을에서 처음 보는 과일도 먹었고 차도 마셨다. 선물용으로 건망고도 사고 점심식사도 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높은 정자가 있는 곳에 가서 여기의 역사에 대해 들었고 ‘장군님이 참 멋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우린 다시 메짬공동체로 돌아와 집에 갈 준비를 하고 그곳의 아이들에게 위십을 보여주고 같이 기도했다. 저녁식사를 다 하고 떠나는데 너무 아쉬웠다. 우리랑 같이 다니고 한국말을 잘하는 쏘쌈, 선교사님들 정말 그리울 것 같다. 우리는 저녁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다.

2월 17일 일요일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짐을 들고 교회로 바로 갔다. 교회에서 중고등부 미니수련회로 선교사님의 좋은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가 끝나자 우리의 짧은 단기선교의 여정이 끝났다. 처음 가는 선교가 6일 만에 아쉽게 끝났다. 6일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보았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다. 단기선교를 오게 된 계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찾고 싶어서 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며 새로운 도전을 받게 하신 것 같다. 내가 단기선교를 시작할 때도, 도중에도, 태국에 갔을 때도 항상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심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다. 단기선교 1기때 너무 하고 싶었지만 못 했지만 단기선교 2기라는 기회가 생겼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수시원서를 쓰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셨다. 태국에서의 금요일 날 또다시 체험하였는데 그 날 아침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라는 말씀을 외웠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셨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태국을 바라보면서 구석구석에 불상들이 있고 ‘불교의 나라’ 라는 게 실감이 나서 안타까웠다. ‘나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믿고 있진 않은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라오스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왕관카지노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겠다.”

부록 4. 아기학교 주차별 프로그램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수료식 |
|--|--|------------------------|---|---|
| 10:30~ 등원맞이(이름 표) *사진찍기 자유영역놀이 10:55~ 자유영역놀이 정리 | 10:30~ 등원맞이 (이름표) 자유영역놀이 10:55~ 자유영역놀이정 리 | 가을산행 장소: 평촌 자유공원 | 10:30~ 등원맞이 (이름표) 자유영역놀이 10:55~ 자유영역놀이정 리 | 10:30~ 등원맞이(이름 표) 자유영역놀이 10:55~ 자유영역놀이정 리 |
| 11:05~ *찬양율동 신체체조 *광고 - 아기학교 소개/선생님 소개 *말씀 - 하늘땅 바다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1) | 11:05~ *찬양율동 신체체조 *말씀- 낮엔일하고 밤엔쉬라하셨어 요 (창1:14-19) | (10:30분~13시) | 11:05~ *찬양율동 *신체체조 *말씀- 낮엔 일하고 밤며 새와 짐승도 만드셨어요 (창세기 1:14- 19) | 11:05~ *찬양율동 *각반 찬양과 소감발표 |
| 11:45~ *분반 1. 선생님소개 안내 (결석 지각하지않기 소식지소개) *가방과 책자 출석도장찍기 | 11:40~ *분반활동 1. 간식찬송 / 간식나누기 2. 출석부 도장찍기 3. 소식지 나누기 4. 만들기 별과달팔찌만들 기 | | 11:35~ *분반활동 1. 간식찬송 / 간식나누기 2. 출석부 도장찍기 3. 소식지 나누기 4. 동물발자국만 들기 | 11:20~ *대그룹 활동 - 신문지 비놀이 11:50~ *수료증, 개근상 *동영상 *말씀- 전기호목사님 |

| | | | | |
|--|---|--|--|---|
| 2. 꽃화분 만들고 자기소개하기 3. 만들기 케익만들기 4. 간식 | | | | 12:10~ *광고 |
| 12:25~ 정리/축복찬양 / 기도/귀가 | 12:05~ *대그룹활동 (대형비닐놀이) 12:25~ 정리/축복찬양 기도/귀가 | | 12:00 *대그룹활동 (동물발자국찍 기놀이) 12:25~ 정리/축복찬양/ 기도/귀가 | 12:10~ *분반활동 1. 출석도장 2. 간식 3. 설문지 작성 12:25~ 정리/축복찬양/ 기도/귀가 |

부록5. 성품태교학교 간증문

1) 김** 성도의 간증문

첫째를 임신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태교학교를 처음 왔던 날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째 태교학교를 마치려니 아쉽다. 솔직히 시온이의 소식을 듣고 태교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할까 말까 고민도 했다. 아무래도 들었던 강의들을 다시 듣는 것이라 생각했고, 첫째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도 결렸다. 하지만 둘째라고 안하면 시온이가 섭섭할까봐 약간의 의무감을 가지고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같이 하자고 권해주신 전도사님 말씀처럼 첫째를 돌보다 보니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잊을 때가 많기에, 이 시간만큼은 시온이를 위해 쓰자 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번째라 비슷하겠지 하는 내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프로그램이나 강의는 비슷했지만, 함께 하는 선생님들과 엄마들이 달랐기 때문에 분위기는 많이 달랐다. 영아부에서 만난 선생님들과 엄마들이 함께여서 처음 태교학교와 달리 긴장이 덜 되었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 감사하게도 둘째 엄마들이 많아서 함께 육아와 임신에 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강의도 다르게 들렸다. 처음에는 그저 이론을 공부하는 학생 같아서 강의 내용들을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드리지 못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경험을 생각해보며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게 되어서 더욱 귀한 강의들이었다. 강의를 들으며 아이를 낳고 모유수유를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다시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에 감사하다.

그리고 이번에 태교학교를 통해 선생님들의 섬김에 다시 한 번 감동받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끄럽지만, 첫 번째 태교학교 때 받은 섬김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임신부였고, 선생님들은 선생님이었으니까... 하지만 첫째를 데려가야 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첫째 엄마들이 첫째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는 모습이 너무 멋지시고, 섬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니 나도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과 엄마들을 더 잘 사랑하고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났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핑계 아닌 핑계로 첫째 때문에 과제를 좀 더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에는 태교학교 책도, 바느질도 열심히 낮에 태교를 하며 태담을 나누며 했었는데, 이번에는 첫째 재우고 나서 밤에 피곤한 상태로 하다 보니 그저 숙제를 다 하는 것에 의미를 둔 것이 조금 아쉽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아무나 태교학교라는 감사한 경험을 두 번씩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

이런 경험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게 섬겨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한 엄마들, 마지막으로 엄마 따라와서 잘 놀아준 우리 딸,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김** 사모 간증문

둘째에 대한 고민을 몇 년 동안 하시게 하더니 2016년 드디어 우리 가정에 둘째를 주셨고 2월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첫째 케어에 몸이 지칠 대로 지쳐있어 태교는 커녕 겨우 내 몸 하나 추스릴 수 있었다. 평소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고 싶었으나 평일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직장인이 참여하기는 힘든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태교학교는 3월에 시작한다고 하니 망설일 필요 없이 신청하게 되었다. 2월에 광고를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 달을 기다렸으며 드디어 3월 9일 처음 시작하였다. 영아부에서 부르는 찬양을 태중 아가와 함께 불렀는데 여러 곡 중에서도 나는 감사송이 너무 좋았다. 이 찬양을 부르면 내 안에 절로 감사함이 흘러나오고 아이가 우리 가정의 큰 축복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매 주 전도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내 삶의 도전이 되어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자녀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매 주마다 스트레칭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동작들을 알려주셨으며 짧은 시간이나마 굳어 있는 몸을 풀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매 주 선생님들께서 맛있는 간식과 차를 챙겨주셨으며 덕분에 중간에 배고픔을 덜며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싶다.

첫 주에 생명의 신비라는 영상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 주신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잉태 되었는지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과정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으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리라 마음을 다잡게 된 계기가 되었다. 둘째 주 사랑의 전화기를 만들면서 그 전까지 태교와 태담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 반성하며 틈나는 대로 태중 아가와 대화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강사님들의 강의 또한 매우 알찬데 순산분만 과정과 무유수유 강의를 들으며 도전받게 되었다. 호흡법을 통해 긴장을 이완시키는 법과 출산하는 과정이 통증을 느끼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이가 좁은 산도를 잘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며 아이와 협업하여 낳으리라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첫째 때 혼합을 하다가 모유를 얼마 먹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도전 받아 돌이 될 때까지는 꼭 모유수유를 하겠노라 다짐하게 되었다.

또한 분반모임을 통해 출산 시기가 비슷한 산모들과 함께 교체하며 나누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며 격려할 수 있었고 우리를 위해 기도로 헌신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매 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벌써 마친다고 하니 매우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봉사해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랑,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24기 태교학교를 마치는 산모들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여 예쁜 아가들과 영아부 예배에서 뽀 날을 기다리며 6주 동안 함께한 시간들 너무 소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부록 6. 유스비카 리더 지침서

1) 유스비카 리더의 신앙생활

- (1)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예배를 목숨과 같이!
-설교를 요약하여 삶의 적용하기를 힘쓰자 !
- (2) 매일 성경묵상(Q.T)시간을 갖는다. 리더라면 비전QT는 필수!!
- (3) 시간이 길든 짧든 매일 기도하기에 힘써야한다. 습관화되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라.
- (4)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을 매일 섭취하자.
-매일 시간을 정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 (5) 다른 리더들과 자주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가 도전받고 격려하는 동역자로 나아가간다.
- (6) ‘전도 대상자가 있는가?’ 를 스스로 질문하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목표이다.
- (7) 리더의 사명 감당하며 기쁨과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 있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2) 예배모임 준비를 철저히 해야 승리한다.

- (1) 리더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꼭! 제 시간에 오도록 한다.
- (2) 목사님 강의를 꼼꼼히 메모하고, 한 번 더 살핀 후 기도로 철저히 준비한다.
- (3) 강의를 듣고 리더들과 깊이 있는 나눔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예배모임 친구들의 삶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기도로 나아간다.

(4) 학교 특성에 맞도록 다시 예배모임을 준비한다. (기본적인 틀 안에서 추가적인 적용의 부분을 첨가한다.)

(5) 충분한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한다.

3) 예배모임 인도 방법 - 하나님을 의지하라!

(1) 예배모임을 시작할 때 찬양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열도록 한다.

(2) 예배를 시작할 때에는 꼭 기도로 시작한다. 이때에는 꼭 리더가 하지 않아도 좋다.

(3) 해당되는 본문을 2-3번 정도 집중하여 함께 읽는다. 성경을 읽을 때 감동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4) 시간에 알맞게 나눔을 시작한다. 전체가 하지 않아도 좋고, 그룹별로 나뉘어도 좋다.

(5) 기도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마무리한다.

4) 친구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1)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주 안에서 교제하길 힘써라.

(2) 예배모임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한 가족과 같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서로 질타하고, 서로의 약점을 이야기하면 곤란하다.

(4) 기회가 된다면 예배모임 이외의 시간에도 함께 모임을 가지는 것도 좋다.

(5) 공동체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한다.

5) 서브 리더와 관계 - “서브리더를 동역자로 여기라”

(1) 서브리더는 리더모임에 함께하도록 하여 준비되도록 한다.

(2) 리더 혼자 하기에 벅찬 일이 있다면 꼭 서브 리더에게 부탁한다.

- 이를 통해 서브 리더에게 책임감과 역할을 제시해 줄 수 있다.

6) 학교 밖에서의 신앙생활 - “예배의 연속이다”

(1) 항상 자신이 리더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개인적 신앙생활과 친구들과의 교제에 소홀히 여기지 말라!

(2) 항상 생명이 넘쳐흘러 주변사람들에게 미치도록 하길 힘써야 한다.

7) 리더는 혼자가 아니다!

(1) 리더는 학교의 특수한 상황, 기도요청할 것을 꼭 교역자에게 이야기하여 교회와 학교가 동역할 수 있게 한다.

참고 문헌

외국어서적

- Gibbs, Eddie. Ryan K. Bolger. *Emerging Churches: Creating Christian Community in Postmodern Cultures*. MI: Baker Academic, 2005.
- Sargeant, Wendi. *Christian Education and the Emerging Church: Postmodern Faith Formation*. OR: Pickwick Publications, 2015
- Sweet, Leonard. *11 Genetic Gateways to Spiritual Awakening*. TN: Abingdon Press, 1998.
- Sweet, Leonard. *Soulsunami: Sink or Swim in New Millennium Culture*. MI: Zondervan. Kindle Edition, 2009.
- Sweet, Leonard. *Giving Blood: A Fresh Paradigm for Preach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 Sweet, Leonard.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 Revive Us Again*. TN: Abingdon Press, 2012.

번역서적

- Kimball, Dan. *The Emerging Church*. 윤인숙 역,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 서울: 이레서원, 2008.
- Tapscott, Don. *Grown Up Digital: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이진원 역,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가 움직이는 새로운 세상 디지털네이티브*. 서울: 비즈니스북, 2009.
- Webster, Frank.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조동기 역, *정보사회이론*. 서울: 나남, 1997.
- Hedricks, Howard G. *The 7 Laws of Teacher*, 김의원, 조남수 역, *교사 입니까?* 서울: 아가페, 1993.
- Long, Jimmy. *Emerging Hope: A Strategy for Reaching Postmodern Generations*, 신현기 역, *새로운 청년사역이 온다*. 서울: IVP, 2009.

- Edward, Jornathan. *Much in deed of charity*, 백금산 역, 불우이웃돕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다.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 Cole, Neil. *Church 3.0.*, 안정임 역, 교회 3.0.. 서울: 스테스톤, 2012.
- Hibert, Paul G. *Transforming Worldviews: An Anthropological Understanding of How People Change*, 홍병용 역,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복음은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가? 서울: 복있는사람, 2010.
- Sweet, Leonard. *Carpe Manana: Is Your Church Ready to Seize Tomorrow*. 김영래 역, 미래 크리스천. 서울: 좋은 씨앗, 2005.
- Sweet, Leonard.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이지혜 역.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Sweet, Leonard. *Post-modern Pilgrims: First Century Passion for the 21st Century World*, 김영래 역,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서울: 좋은 씨앗, 2002.
- Granz, Stanley J. *A Primer Postmodernism*, 김운용 역,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WPA, 2010.

한국어서적

- 김영한. 21C 세계관과 개혁신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2001.
-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조병호.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가이드북.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그 순간.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스쿨.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08.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통독원, 2007.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논문, 잡지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신학과세계* 80, 2015, 526-554.

김영래. “스타벅스에서 배우는 포스트모던 목회.” *목회와신학*, 2008년 8월호.

김정훈.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통전적 가르침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2005.

데이빗 그리핀. “포스트모던 시대의 영성과 사회(1)” *세계의신학* 1997 겨울, 252-266.

신정원.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의 EPIC 이론과 포스트모던 기독교 청소년 교육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우지연.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청소년교육: 고통과 열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독교교육”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8

천정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교회 문화에 대한 연구: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의 EPIC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9.

홍승철. “포스트모던 시대 한국 토착적 이머징 교회 방향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2016.

홍원표. “포스트모던시대의 청소년 영성교육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2015.

김우용, “4 차 산업혁명 시대, 오픈소스와 참여의 힘.” ZDNET KOREA 뉴스, 2016.6.30,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630075944

송형석, “세상을 집어삼키는 아마존 성공의 4 원칙,” 한국경제신문, 2017-10-18,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7101724631&category=AA021&sns=y>

윤정원, “조말론은 어떻게 상류층을 사로 잡았나?” 브런치 웹진 끌리는 것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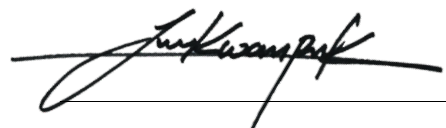
비밀, 2018-2-9, (<https://brunch.co.kr/@fit/8>)
이효정, “전시장 벗어난 자동차, 경험·문화를 판다,” 브릿지 경제신문, 2018-01-18,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116010006142>

V I T A

PERSONAL DATAFull Name: Jaekwan Park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Sep.22, 1976Parent's Names: Seungsup Park and Youngsook Park**EDUCATIONAL INSTITUTIONS**

| <u>School (Name and Address)</u> | <u>Degree</u> | <u>Date</u> |
|--|---------------|-----------------|
| Secondary Hwagok High School : 69, Gangseo-ro 45-gil, Gangseo-gu, Seoul, Republic of Korea | Diploma | Feb.13, 1995 |
| Collegiate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 190, Bogyuseong-dae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 B.A | Aug.25, 2003 |
| Graduate: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190, Bogyuseong-dae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 M.div | Aug. 31 2008 |
| Graduate: Sejong University 209,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 M.A | Aug. 21 2008 |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



Signature

Jaekwan Park

Name typed

May 4, 2018

Date